

# 어촌활성화를 위한 어항의 활용방안연구 (대천항을 중심으로)



2009. 10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554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 제 1 장 과업의 개요

##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1.1 과업의 배경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으로부터 보령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 중 연안과 도서를 방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해수욕장, 어항, 어촌 등은 농촌과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고유한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어촌과 바다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2009년 보령시 신흑동과 태안군 고남면을 잇는 14.9km의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 사업이 착수되어 경기 북부권, 전라 북부권, 중부내륙권과 안면·태안지역을 잇는 관광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어항은 수산물의 양륙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판매공간, 도서로 출발하는 교통 시발점 등 지역주민의 교류공간인 동시에 지역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공간 역할을 하고 있음
  - 대천항은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된 대천해수욕장 관광특구지역과 인접하고 서해열도(원산도, 효자도, 장고도, 고대, 삼시도 등)의 출입항으로서 각종 어패류가 집산되는 어업의 전진기지임
  - 어항의 유희공간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어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즉 어항을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수산물의 가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어촌 활성화의 주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선어, 활어, 건어, 패류 등이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의 직판으로 보령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수산물의 유통과 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

- 그러나 대천항은 1995년 1단계 사업이 완공된 후 14년이 지났으며, 그 때 만들어진 시설(어관장, 어시장, 냉동·냉장시설, 친수시설 등)은 모두 낡아서 시설의 활용면이 떨어지며, 대천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안도로정비 및 도로 주차장 등의 정비가 필요함

### 1.1.2 과업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물의 유통과 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대천항이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1.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 1.2.1 과업의 범위

- 문헌조사를 통하여 어촌 활성화 관련 정책, 농어촌 경제 활성화 사례 등을 파악하고
- 다양한 어항과 연계한 어촌지역 활성화 사례 조사·분석

- 대천항의 기능 중 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의 소득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수립,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의 추진 및 관리·운영방안, 참여주체들의 연계 및 협력 촉진 방안, 기존 산업 간 연계 방안 제시

### 1.2.2 과업의 기간

- 2009년 8월 1일 ~ 2009년 10월 31일(3개월)

### 1.2.3 시간적 및 공간적 범위

- 타당성조사계획 : 2009. 8월~2009. 10월
- 사업 계획 기간 : 2011~2016년(5년간)
- 충청남도 보령시 흑석동 대천항일원

## 제2장 보령시의 여건 분석

### 2.1 보령지역의 여건 분석

### 2.2 관광 현황

## 제 2 장 보령시의 여건 분석

### 2.1 보령지역의 여건 분석

#### 2.1.1 자연 현황

##### 가. 지형 및 지세

-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서남부, 차령산맥과 서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북쪽은 홍보지구 간척지를 경계로 홍성군 서부면·결성면, 천수만을 경계로 홍성군 은하면, 아차산·오서산을 경계로 홍성군 광천읍·장곡면에 접하고 있고, 동쪽은 오서산·스무티고개를 경계로 청양군 화성면, 성태산·백월산을 경계로 청양군 남양면, 문봉산·만수산·아미산을 경계로 부여군 외산면, 월명산을 경계로 부여군 내산면, 자명이고개를 경계로 부여군 홍산면, 옥녀봉을 경계로 부여군 옥산면에 접하고 있으며,
- 남쪽은 장태산을 경계로 서천군 판교면, 군계 하천을 경계로 서천군 비인면, 부사지구 간척지를 경계로 서천군 서면과 접하고 있음. 서쪽은 서해 바다를 건너 태안군 안면읍과 고남면에 접하고 있음.
- 따라서 보령시는 4개군 14개 읍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바다를 포함하면 5개군 16개 읍면에 둘러싸여 있음
- 동서 길이 약 71km, 남북 길이 약 42km이지만 섬 지역을 제외하면 육지는 대략 남북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음.

○ 보령시 각 방향 끝의 경위도상 위치는 다음과 같음.

북쪽끝 : 북위 36° 31' 20"(천북면 장은리)

남쪽끝 : 북위 36° 10' 15"(주산면 신구리)

동쪽끝 : 동경 127° 38' 31"(미산면 도흥리)

서쪽끝 : 동경 125° 32' 21"(오천면 외연도리)

보령시청 : 동경 126° 36' 47". 북위 36° 2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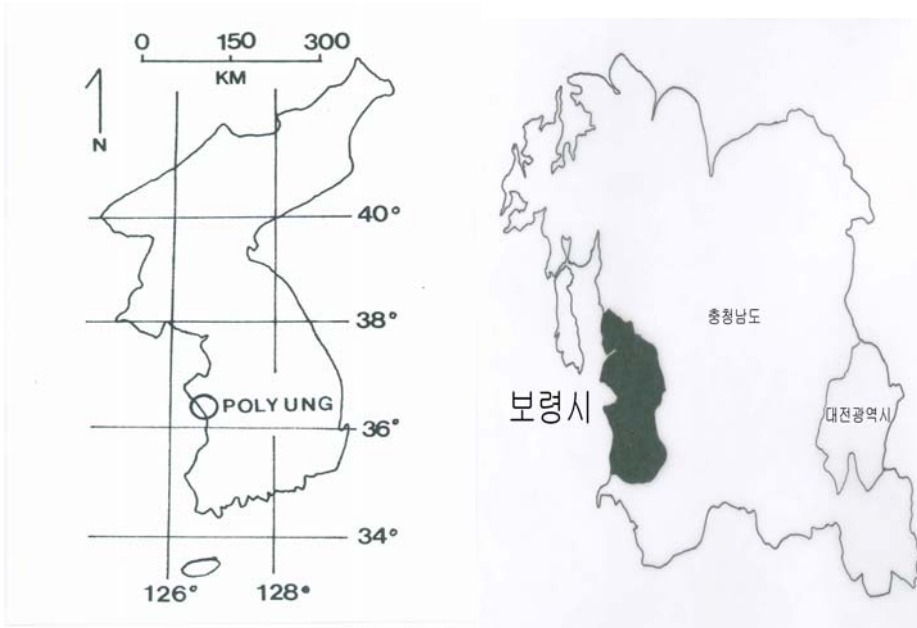


그림. 1 보령시의 위치

#### 나. 영역

○ 보령시의 총 면적은 568.94km<sup>2</sup>로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도내 16개 시군 중 7위에 해당되므로, 중간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령시의 행정구역은 1개 읍, 10개 면, 5개 동, 2개 출장소, 104개 통, 235개 행정리, 101개 법정리, 116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청라면은 69.83km<sup>2</sup>(12.27%)로 가장 넓고, 대천2동은 4.07km<sup>2</sup>(0.72%)로 가장 좁음
- 행정리 수는 웅천읍이 35개로 가장 많고, 주포면이 8개로 가장 적음. 반 수는 웅천읍이 98개로 가장 많고, 대천2동이 57개로 가장 적음.
- 보령시에 속한 섬은 총 75개로 그 중 15개(송도, 빙도, 원산도, 삼시도, 고 대도, 장고도, 효자도, 월도, 육도, 허육도, 소도, 추도, 여슴, 외연도)는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도이고, 나머지 60개는 무인도임

표 1. 보령시 행정구역

읍면동별	면적(km <sup>2</sup> )	비율(%)	통리				반	출장소
			계	통	리(행정)	리(법정)		
합계	568.94	100.00	349	104	235	101	1162	2
웅천읍	62.50	10.99			35	13	98	
주포면	13.34	2.34			8	5	28	
주교면	36.32	6.38			20	6	68	
오천면	50.41	8.86			22	10	87	
천북면	55.14	9.69			28	8	72	
청소면	38.45	6.76			21	8	68	
청라면	69.83	12.27			21	11	82	
남포면	49.44	8.69			24	13	90	
주산면	40.93	7.19			29	11	71	
미산면	65.52	11.52			16	14	70	
성주면	39.77	6.99			11	2	45	
대천1동	5.22	0.92		29			88	
대천2동	4.07	0.72		16			57	
대천3동	8.44	1.48		20			83	
대천4동	7.53	1.32		21			93	
대천5동	22.03	3.87		18			62	

자료 : 보령시 홈페이지(2005.12.31일 현재)

## 2.1.2 기후

### 가. 일반특색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남.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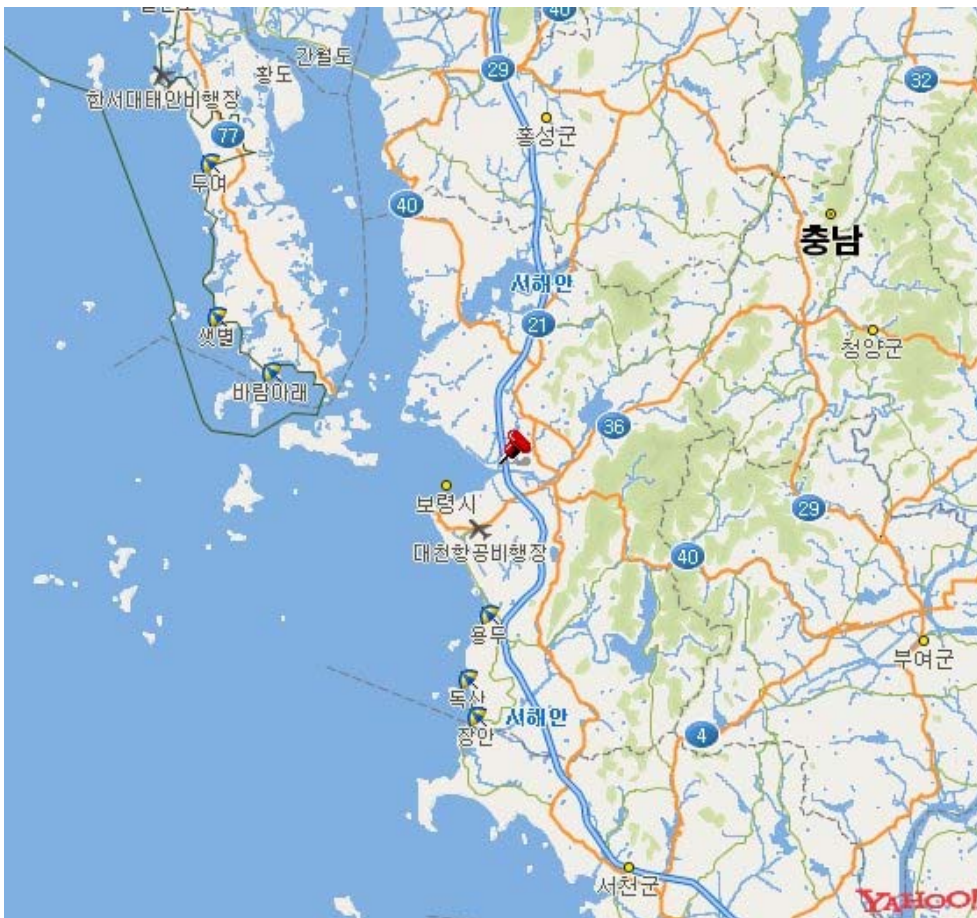


그림 2. 보령시 행정구역

- 보령시의 기후는 보령시가 남한 서해안의 중앙이라는 위치적 특성을 잘 나타냄. 같은 위도의 내륙지방에 비하여 겨울에 좀 더 온화하고, 여름에 좀 덜 더워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점, 동위도의 동해안 지방에 비하여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더운 것 등은 보령시가 서해에 인접해 있어, 우리나라 서해안의 기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임.
- 보령시 관내에서도 섬 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겨울에 온화하고, 여름에 비교적 시원하기 때문에 외연도상륙수림 같은 난대림의 숲을 이루고 있음. 반면 동부지역인 미산면, 성주면 등은 차령산맥으로 가로막혀 내륙의 기후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보령지방에는 1972년 보령기상관측소가 설치되어, 1972년 1월 24일부터 관측을 시작하였음.
- 보령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를 기후 요소별로 분석해 보고자 함.

## 나. 기온

### 1. 연평균기온

- 보령지방의 35년간 연평균기온은 12.20℃임. 이는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방의 6℃, 제주도 지역의 16℃와 비교할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함. 가장 낮은 해는 1980년으로 10.8℃를 나타냈고 가장 높은 해는 1998년으로 13.6℃였으며, 그 차는 2.8℃에 이름.
- 5년간의 평균기온과 10년간의 평균기온의 변화를 보면 연평균기온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특히 10년간의 평균기온 변화를 보면 대략 0.4℃ 정도씩 상승하고 있으므로 대략 1년에 0.04℃ 정도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령지방의 연평균기온은 대전지방과 비슷한데 월평균기온을 비교하여 보면 내륙지방인 대전과는 많은 차이가 남. 즉 10월부터 이듬해 3월

까지는 보령지방이 대전보다 기온이 높은 데 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는 대전이 높게 나타남. 이는 보령이 해안에 위치하여 내륙에 위치한  
 대전에 비해 겨울에 온화하고 여름에 시원하다는 것을 말해 줌

표 2. 보령지방의 연평균기온의 변화

(단위: ℃, 자료: 기상청)

연도	평균기온	5년평균 기온	10년평 균기온	연도	평균기온	5년평균 기온	10년평균 기온
1972	12.0	11.72	11.71	1992	12.1	12.12	12.53
1973	12.1			1993	11.6		
1974	10.9			1994	12.9		
1975	12.3			1995	12.0		
1976	11.3			1996	12.0		
1977	12.0	11.70		1997	12.7	12.94	
1978	12.3			1998	13.6		
1979	12.3			1999	12.9		
1980	10.8			2000	12.5		
1981	11.1			2001	13.0		
1982	12.3	11.86	12.10	2002	12.9	12.74	12.74
1983	12.1			2003	12.8		
1984	11.6			2004	12.9		
1985	12.0			2005	12.3		
1986	11.3			2006	12.8		
1987	12.0	12.34					
1988	12.1						
1989	12.6						
1990	13.0						
1991	12.0						

## 2. 월별기온평년값

- 보령지방의 월별 평균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평균기온은  $-1.2^{\circ}\text{C}$ 인데 보령지방의 기상관측 이후 가장 낮은 해는 1981년으로  $-5^{\circ}\text{C}$ 에 이르렀고, 가장 높은 해는 2002년으로  $2.6^{\circ}\text{C}$ 에 이르러 그 차는  $7.6^{\circ}\text{C}$ 에 이릅니다.
- 가장 더운 달인 8월의 평균기온은  $25.2^{\circ}\text{C}$ 로 7월  $24.5^{\circ}\text{C}$ 와 비슷한데 1993년과 1994년에는 7월의 평균기온이 8월보다 높았고, 보령지방에서 여름에 가장 더웠던 해는 1994년임.
- 이 해에는 7월 평균기온이  $27.7^{\circ}\text{C}$ 였고, 8월의 평균기온은  $26.9^{\circ}\text{C}$ 였음.

표 3. 월평균기온

(단위 :  $^{\circ}\text{C}$ , 자료: 기상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평균기온	-1.2	0.2	4.7	10.9	16.1	20.7	24.5	25.2	20.4	14.2	7.6	1.7	12.2

## 3. 평년기온

- 보령지방 최고의 평년기온은  $31.0^{\circ}\text{C}$ 이며, 나타나는 날은 7월 31일이며, 이날은 평균기온에 있어서도  $26.6^{\circ}\text{C}$ 로 1년 중 가장 높음. 따라서 보령지방에서는 7월 31일이 여름의 한 가운데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7월 28일( $30.9^{\circ}\text{C}$ ), 8월 8일( $30.8^{\circ}\text{C}$ ), 8월 12일( $30.8^{\circ}\text{C}$ ) 순임.
- 최저의 평년기온은  $-7.3^{\circ}\text{C}$ 로 나타나는 날은 2월 2일 임. 이때는 겨울의 한 가운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입춘 무렵으로 보통 '입춘추위'라고 부르고 이 날은 평균기온에 있어서도  $-2.6^{\circ}\text{C}$ 로 1월 30일과 함께 1년 중 가장 춥고, 다음으로는 1월 20일( $-6.8^{\circ}\text{C}$ ), 1월 19일( $-6.7^{\circ}\text{C}$ ) 순임.

#### 4. 연도별 월별 최고최저기온

- 보령지방의 최고기온은 1994년 7월 25일에 나타난 37.8℃이며, 최저기온은 1990년 1월 26일에 나타난 -17.6℃이다. 그 차는 무려 55.4℃이였음

#### 다. 강수

##### 1. 연평균 강수량

- 보령 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은 1,229.4mm(1972~2007)로 세계평균 880mm보 다는 월등하게 많지만, 우리나라(남한) 평균 1,245mm (1974~2003) 보다는 약간 적은 편임
- 보령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대전(1,353.8mm), 부여(1,334.2mm)보다는 약간 적고, 서산(1,232mm)과는 비슷함. 일반적으로 평야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적고, 산간지역에서 강수량이 많음.
- 연강수량은 해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1988년에는 725.0mm, 1973년에는 734.4mm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는 1,897.5mm 1985년에는 1,556.8mm에 달하여 강수량이 적은 해의 2배 이상에 달하였음

표 4. 연도별 강수량 변화 (1972~2007, 단위: mm, 자료: 기상청)

연도	강수량	연도	강수량	연도	강수량	연도	강수량
1972	1,311.7	1981	1,216.8	1990	1,451.0	1999	1,284.1
1973	734.4	1982	800.0	1991	1,116.9	2000	1,515.4
1974	1,471.6	1983	1,364.2	1992	1,132.3	2001	903.7
1975	1,239.8	1984	1,287.9	1993	1,162.1	2002	1,453.2
1976	874.7	1985	1,556.8	1994	1,269.0	2003	1,343.7
1977	807.7	1986	1,344.9	1995	1,459.5	2004	1,216.2
1978	1,007.6	1987	1,897.5	1996	899.6	2005	1,265.5
1979	1,549.7	1988	725.0	1997	1,442.3	2006	831.4
1980	1,330.6	1989	1,298.5	1998	1,397.2	2007	1,295.8

## 2. 강수일

- 보령지방의 연평균 강수일 중 0.0mm 이상인 날은 134일로 1년의 36% 이고, 0.1mm 이상인 날은 108.7일로 1년의 29%, 1mm 이상인 날은 82.3일로 1년의 22%에 이룸.
- 월별로 보면 7월이 가장 강수가 많아 각각 16.4, 13.8, 11.2일에 이르고 10월은 가장 적어 7.9, 6.7, 5.3일에 이르며, 0.0mm 이상의 강수가 있는 날과 1mm 이상의 강수가 있었던 날 수의 차이는 겨울인 12월, 1월, 2월에 커 겨울에 미량의 강수일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음.

표 5. 보령지방의 평균 강수일 (1971-2000년. 단위 : 일, 자료: 기상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수(0.0mm 이상)	12.8	9.7	9.3	9.3	9.6	11.0	16.4	13.9	9.4	7.9	11.8	12.9
일수(0.1mm 이상)	9.5	7.8	6.8	8.0	7.6	9.5	13.8	11.2	7.5	6.7	10.1	10.2
일수(1mm 이상)	5.5	4.8	5.1	6.5	6.3	7.5	11.2	9.5	6.4	5.3	7.8	6.4

- 1973년부터 2007년까지 가장 강수일이 많았던 해는 2007년으로 171일(0.0mm 이상) 이었고, 가장 강수일이 적었던 해는 1974년과 1977년으로 110일(0.0mm 이상)에 불과하였음. 또한 가장 강수일이 많았던 달은 2006년 7월로 25(0.0mm 이상)일이었고, 가장 적었던 달은 2001년 9월로 2일(0.0mm 이상) 동안 10.0mm의 비만 내렸음. 그리고 강수일이 많아 농사에 큰 피해가 난 해는 2007년으로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2일 중 73일(0.0mm 이상) 동안 비가 내렸음

## 3. 월별 강우 지속시간

- 보령지방의 비 오는 시간의 합계는 총 652.1시간인데, 7월이 83.5시간으로 가장 많고, 10월이 32.4시간으로 가장 적어 추수와 건조에 유리함.

표 6. 월별 강우 지속시간

(평년, 단위 : 시간, 자료: 기상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강우시간	60.4	46.4	45.6	52.8	52.7	62.3	83.5	61.8	47.1	32.4	53.4	53.7

라. 바람

- 우리나라는 아시아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남동풍이 많이 분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은 지형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보령지방의 바람 방향은 다른 지방과 같지 않고, 보령지방 안에서도 지형 조건에 따라 각각 다름
- 연평균 풍속은 2.0m/sec로 10월이 1.6m/sec로 가장 작고 4월, 7월이 2.3m/sec로 가장 크다. 연도별 최대 풍속을 보인 날도 4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보령지방은 4월에 가장 바람이 세게 불.

표 7. 평균풍속

(1971~2000, 단위 : m/sec, 자료: 기상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풍속	1.9	2.1	2.2	2.3	2.1	1.9	2.3	1.9	1.7	1.6	2.0	2.0

- 자연재해 측면에서의 바람은 평균풍속보다 최대 풍속이 중요함. 보령지방의 최대풍속을 보면 1995년 8월 26일에 18.7m/sec, 1999년 11월 1일에 17.7m/sec를 나타내고, 순간최대풍속은 2002년 8월 31일 33.0m/sec를 나타내었고, 1999년 8월 3일 24.7m/sec를 나타내었음



표 8. 바람 극값

(1971~2000, 단위 : m/sec, 자료: 기상청)

등위	최대 풍향 풍속(m/sec)	순간 최대 풍향 풍속m/sec
1위	18.7 SW 1995. 08. 26	33.0 NNE 2002. 08. 31
2위	17.7 NNW 1999. 11. 01	24.7 S 1999. 08. 03
3위	17.0 NNE 1987. 07. 15	23.9 NNW 1999. 11. 01
4위	17.0 SW 1980. 04. 19	23.6 S 1997. 08. 04
5위	16.6 N 2002. 08. 31	23.5 SW 1995. 08. 26

마. 일조시간

○ 보령지방의 1년 평균 일조시간은 2,538.4시간이고, 월평균 일조시간은 211.5시간인데, 5월이 가장 커 263.4시간에 달하고 12월이 가장 적어 157.5시간임.

표 9. 보령의 월별 평균일조시간(평년, 1971~2000, 자료 : 기상청, 단위 : 시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조시간	166.9	181.2	224.6	241.0	263.4	235.3	209.2	237.2	230.1	226.2	165.8	157.5

바. 안개

○ 보령지방의 안개 지속시간은 연평균 65.82시간이다. 계절별로는 봄에 자주 발생하고, 가을에 적게 발생함.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15.00시간에 이르고, 9월에 가장 적게 발생하는데 3.36시간에 불과하며, 보령지방의 안개 발생 시각은 주로 새벽으로 3~6시 사이임.

표 10. 안개 계속시간 합

(1971~2000, 단위: 시간, 자료: 기상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간	6.71	8.59	9.26	12.66	15.00	12.87	11.38	4.08	3.36	4.90	8.56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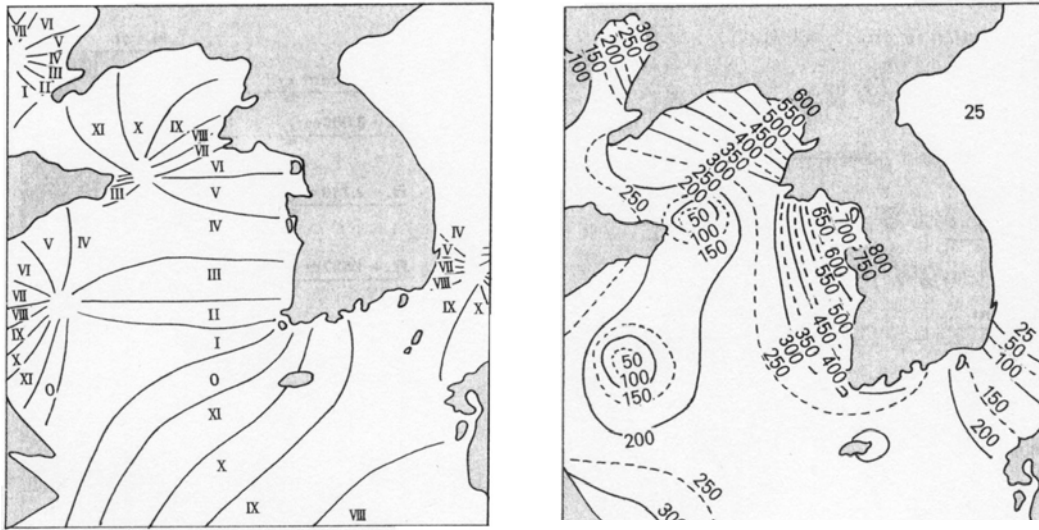
### 2.1.3 해양

-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8%를 차지하고, 약 14억 km<sup>3</sup>의 소금물을 가지고 있다.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인류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다를 활용하여 생활하여 왔음
- 보령지방은 대부분의 읍면동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보령 주민 모두는 바다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바다의 여러 현상 중 보령 시민들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현상은 조석(潮汐)현상임. 해안에 나타나는 광활한 간석지(갯벌)도, 보령시민의 곡창인 각 지역의 간척지도, 고기를 잡는 것도 모두 조석현상에 의한 것이거나 조석 현상을 이용한 것임.

#### 가. 조위

- 우리나라의 조석현상은 동해안에서는 최대 30cm 정도로 아주 작고, 서해안은 인천에서 최대 조차가 9.5m에 이를 정도로 크며, 남해안은 중간 정도임
- 서해바다의 조석현상을 보면 발해만, 산둥반도 서쪽, 동지나해 등에 조석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나타나며, 이곳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 조차가 커져 인천만에서 최대 조차를 보임. 보령지방은 최대

조차 지역인 인천만과 목포의 중간정도의 조차를 나타냄.



등조시도

등조차도

그림 3. 우리나라의 등조시도 및 등차도

- 보령 지방은 대조차 환경에 속하여 간조 때에는 넓은 간석지가 노출되어 연안 주민들의 어업활동이 활발하며, 간석지에 돌담을 쌓아 고기를 잡는 독살어업도 발달하였음. 그러나 보령항, 대천항 등 항구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항구를 깊이 준설해야 되고, 수위가 변해도 언제나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뜰다리 시설을 갖추었음.
- 보령시 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조석현상은 다르게 나타남. 조석 시각은 남쪽으로 갈수록, 외해로 갈수록 빠르고, 북쪽으로 갈수록, 연안으로 갈수록 느림. 무창포항에서 최고조위를 나타낸 후 12분 후에 대천항에서 최고조위가 나타나며, 보령항에서는 7분 후에 최고조위에 달한다. 외연도는 무창포보다 3분이 늦다. 보령항은 대천항보다 북쪽에 있지만 대천항보다 4분이 빠름

표 11. 보령지방의 조위

구분	무창포	대천	보령	외연도
평균고조간격(M.H.W.T)	2시간 52분	3시간 4분	2시간 60분	2시간 55분
평균저조간격(M.L.W.T)	9시간 4분	9시간 15분	9시간 11분	9시간 7분
약최고고조(Approx.H.H.W)	731.6	768.2	763.6	636.6
대조의평균고조(H.W.O.S.T)	670.4	703.6	700.3	578.4
평균고조(H.W.O.M.T)	587.2	620.6	611.2	509.3
소조의평균고조(H.W.O.N.T)	504.0	537.6	522.1	440.2
평균(M.S.L)	365.8	384.1	381.8	318.3
소조의평균저조(L.W.O.N.T)	227.6	230.6	241.5	196.4
평균저조(L.W.O.M.T)	144.4	147.6	152.4	127.3
대조의평균저조(L.W.O.S.T)	61.2	64.6	63.3	58.2
약최저저조(Approx.L.L.W)	0.0	0.0	0.0	0.0
대조차(Sp.Range)	609.2	639.0	637.0	520.2
평균조차(Mn.Range)	442.8	473.0	458.8	382.0
소조차(Np.Range)	276.4	307.0	280.6	243.8

- 조차는 대천항에서 최대치를 보인다. 대조차의 경우 대천항은 무창포항보다 29.8cm가 크며, 외연도항보다는 무려 119cm가 크다. 보령지방에서의 조차도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커지고, 외해로 갈수록 작아짐.
- 표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령지방에서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대개 여름철로 8월의 빈도가 가장 높다. 최고치는 848cm이고(1997년 8월 19일). 썰물이 가장 많이 나가는 때는 보통 겨울철로 2월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최고치는 -62cm임(1995년 12월 24일).

표 12. 보령항의 최극조위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날짜	조위
87	고	772	745	724	741	764	777	785	802	786	784	752	752	08/11	802
	저	-6	-14	-17	16	15	29	26	16	6	16	21	10	03/01	-17
88	고	768	772	768	778	734	748	792	788	786	792	724	715	07/31	792
	저	-16	-26	-24	10	38	52	21	-7	-6	6	-8	20	02/18	-26
89	고	744	754	752	772	780	798	762	791	820	785	785	753	09/17	820
	저	8	-24	-21	-20	12	38	48	36	10	-27	-18	-10	10/16	-27
90	고	740	732	772	788	772	788	781	795	774	794	795	778	08/22	795
	저	8	4	-5	-22	3	31	48	55	39	8	-4	-32	12/04	-32
91	고	781	740	736	760	766	781	786	796	768	773	748	775	08/12	796
	저	-32	-14	-3	-4	4	18	19	22	28	12	-17	-17	01/02	-32
92	고	766	751	746	773	755	764	784	814	796	772	752	764	08/30	814
	저	-42	-39	-8	8	44	30	-5	3	4	12	4	-8	01/22	-42
93	고	745	748	756	772	774	755	771	788	790	821	823	756	11/15	823
	저	-16	-36	-28	-32	20	40	25	12	-10	11	26	-7	02/09	-36
94	고	776	781	792	820	788	781	772	827	782	803	802	784	08/10	827
	저	16	18	2	29	6	29	49	53	16	-8	-15	-36	12/05	-36
95	고	768	741	748	782	794	794	785	781	767	783	789	773	05/17	794
	저	-6	-5	-6	-4	-3	3	15	16	9	7	-19	-62	12/24	-62
96	고	779	736	743	730	766	782	802	823	784	769	754	760	08/01	823
	저	-22	-39	2	17	2	14	10	-2	24	12	14	-1	02/20	-39
97	고	765	779	771	749	756	775	798	848	793	789	769	753	08/19	848
	저	-24	-32	-21	-19	-4	40	14	7	-19	-19	-6	0	02/09	-32
98	고	753	758	760	785	783	785	777	792	794	802	814	779	11/06	814
	저	-17	-27	-20	-13	14	51	62	42	17	-10	-24	-17	02/28	-27
99	고	761	734	765	785	801	796	787	793	774	794	806	761	11/24	806
	저	4	-22	-22	3	-2	13	32	49	30	16	3	-14	02/19	-22
00	고	771	747	735	755	771	791	797	837	791	755	770	765	08/31	837
	저	-25	0	30	11	11	29	19	33	35	27	12	-6	01/23	-25
01	고	764	771	746	755	765	782	796	833	796	793	745	763	08/21	833
	저	-6	-25	-11	13	24	40	23	8	-3	-2	13	16	02/10	-25
02	고	754	770	771	786	771	766	784	797	828	784	793	768	09/08	828
	저	-18	-20	-28	-2	28	64	61	30	1	-6	-7	9	03/01	-28
03	고	730	753	762	779	701	792	773	772	794	814	796	761	10/27	814
	저	22	1	-39	-13	65	33	65	38	19	-1	-19	-2	03/28	-39
04	고	748		730	744	784	779	809	801	799				07/04	809
	저	6		23	-4	2	28	51	44	45				04/07	-4
05	고		756	749	767	763	780	801	809	781	776	758		08/22	809
	저		-21	-2	28	51	58	35	30	20	25	40		02/10	-21
06	고	766	760	765	792	753								04/30	792
	저	6	0	-22	18	72								03/01	-22

- 밀물 때에는 수위가 높아져 바닷물이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기도 하고, 해안 저지대를 침수시키기도 함. 보령지방에서 침수 피해가 많은 곳은 오천면 소성리이고, 일제시대 때립한 곳인데 만조위보다 낮게 때립하여 침수피해가 잦음. 그림 4는 2007년 9월 29일 17시 13분에 찍은 사진이며, 이날 보령항의 예보치는 17시 07분에 789cm였고, 보령항 기준 위험수위는 824cm이고 경계수위는 804cm, 주의 수위는 784cm임



오천면 소성리의 해수 침수  
(2007. 09. 29. 17:13)



오천면 소성리의 해수 침수  
(2007. 09. 29. 17:15)

**그림 4. 해수상승에 따른 침수구역**

- 보령지방의 조위의 변화는 서산방조제, 홍보지구 방조제, 남포방조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과거에는 깊은 내만(內灣)으로 바닷물이 출입하였으나 모두 제방으로 차단되어 조차가 더 커졌음.
- 평균해수면의 높이는 겨울에 낮아지고 여름에 높아진다. 보령지방의 평균해수면의 높이는 다음과 같음(1986~2006년 평균).

**표 13. 평균해수면의 높이**

(보령항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69.5	370.1	375.2	383.2	390.4	398.7	408.0	406.8	400.6	391.1	381.3	373.8

## 나. 조류

- 보령지방의 조류는 대개 남북방향으로 흐르며, 대조차환경이라 조류가 비교적 빠르며, 가장 빠른 곳은 효자도와 송도 사이임. 이곳에서는 창조류(漲潮流) 191.7cm/s, 낙조류(落潮流) 157.9cm/s로 창조류가 더 강하고, 먼 바다에서는 조류가 약한데 대개 50cm/s~80cm/s에 이름.

## 다. 해양환경

- 우리나라 연안에서 관측된 연평균 수온은 동해안이 8.6℃~15.9℃이며, 남해안은 15.7℃~18.8℃, 서해안은 10.9℃~14.9℃를 나타내며, 보령 지방의 바닷물 평균 온도는 15℃ 정도인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표 14. 월별 해양환경(1992-2006)

월	층	수온℃	염분 (0/00)	pH	용존 산소 (mg/L)	총질소 (mg/L)	총인 (mg/L)	화학적산 소요구량 (mg/L)	용존 무기질 소(mg/L)	용존 무기인 (mg/L)
02	표층	4.2	31.12	8.03	10.37	0.478	0.039	1.29	0.24	0.022
	저층	4.0	31.77	8.00	10.16	0.474	0.043	1.50	0.19	0.023
05	표층	13.7	30.42	8.07	9.05	0.377	0.033	1.21	0.17	0.012
	저층	13.2	31.00	8.10	9.15	0.361	0.032	1.15	0.09	0.011
06	표층	19.0	30.45	7.95	8.49	-	-	1.13	0.55	0.010
	저층	-	-	-	-	-	-	-	-	-
08	표층	25.9	29.48	8.19	7.57	0.809	0.053	1.78	0.20	0.021
	저층	25.3	29.34	8.12	6.73	0.751	0.050	1.70	0.20	0.014
09	표층	20.4	30.92	7.77	7.73	-	-	1.43	0.50	0.363
	저층	-	-	-	-	-	-	-	-	-
11	표층	15.2	31.14	7.96	7.58	0.351	0.045	1.06	0.20	0.019
	저층	15.2	31.74	8.00	7.50	0.364	0.048	1.05	0.12	0.017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령지방의 바닷물 온도는 2월이 가장 낮아 4.2℃를 나타내고, 8월이 가장 높아 25.9℃를 나타낸다. 염분 농도는 표층이 30.58, 저층이 30.96으로 세계 평균 34.82보다는 상당히 낮고, 서해 바다가 육지에 둘러싸여 있어 담수의 유입이 많고, 특히 보령 해안은 육지로부터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임.
- 수소이온농도(pH)와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은 일본의 환경기준에 적합할 정도로 매우 양호함. 다만 표층의 총질소와 총인의 평균은 각각 0.50mg/L, 0.04mg/L로 일본환경 기준치와 비교해 보면 연중해수욕장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생물서식환경 기준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어장으로서는 양호한 조건임.

## 라. 갯벌

### 1. 천북면 사호리 갯벌

- 천북면 사호리 일대에 드러나는 갯벌이다. 갯벌은 모두 자갈로 덮여 있다. 마을 어촌계에서 바지락과 굴을 양식하는데, 가구마다 구획을 지어 양식을 하고 있다. 갯벌의 경사가 비교적 급하여 간조때 드러나는 면적은 좁음.



그림 5. 천북면 사호리 갯벌



## 2. 오천면 영보리 갯벌

- 오천면 영보리 지역의 갯벌임. 보령신항 건설 예정 지역 해안은 자갈로 되어 있으나 사리 때 썰물이 되면 모래로 된 갯벌이 바다 가운데에 드러남. 사리 때라도 물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음
- 가송구지 마을 앞에 있는 갯벌은 돌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바지락, 낙지 등 각종 해산물이 풍부함

## 3. 주교면 송학리 갯벌

- 주교면 송학리 산고래에서 송도에 이르는 갯벌임
- 사질갯벌도 있고, 암석으로 된 갯벌도 있다. 특히 송도 주변 갯벌에서 바지락, 모시조개, 민꽃게, 낙지, 해삼 등이 많이 잡힘.



오천면 영보리 갯벌



주교면 송학리 갯벌

그림 6. 오천면 영보리 및 주교면 송학리 갯벌

## 4. 주교면 은포리 갯벌

- 주교면 은포리 해안의 갯벌이다. 대천천의 하구로 신흑동과 마주함. 연안은 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조선 부근 즉, 신흑동과 중간 지점은 사질 갯벌임.

- 바지락의 황금어장으로 은포리 주민들이 관리하는 넓은 바지락 양식장이 있고, 양식장 밖에서는 보령 시민들의 맨손어업이 활발함. 보령에서 바지락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임
- 지형이 완만하여 해안에서부터 수km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하면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워 위험하고, 1년에 몇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함.



그림 7. 주교면 은포리 갯벌

### 5. 남곡동 해망산 갯벌

- 보령시 남곡동 해망산 앞에 있는 갯벌임. 대천천의 하구로 은포리 갯벌과 연결되어 있고, 지형이 완만하여 해안으로부터 수km를 들어가 조업함
- 바지락, 맛 등 해산물이 풍부하여 언제나 조업할 수 있으나,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갯골을 건너는 경우가 있으며 안개가 발생할 경우 방향을 분간할 수 없어 위험함

### 6. 남포면 월전리 갯벌

- 남포면 월전리 용머리 마을에서 죽도에 이르는 갯벌임. 해안쪽에는 사질갯벌이고 수심이 깊은 곳은 점토질이 많이 섞인 갯벌고, 각종 조개, 큰구슬우렁이 등 해산물이 풍부함.



남곡동 해망산 갯벌



남포면 월전리 갯벌

그림 8. 남곡동 해망산 및 남포면 월전리 갯벌

### 7. 웅천읍 관당리 갯벌

-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 앞에 있는 갯벌임. 암석질 갯벌과 모래질 갯벌이 반반씩 나타나고, 특히 사리 때는 석대도와 연결되어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임
- 석대도와 연결되는 길을 중심으로 굴, 바지락, 낙지, 해삼, 각종 고둥, 모시조개, 민꽃게 등 해산물이 풍부함.



그림 9. 웅천읍 관당리 갯벌

## 8. 웅천읍 독산리 갯벌

- 웅천읍 독산리 독대섬에서부터 웅천읍 관당리에 이르는 갯벌임. 갯벌의 중앙부는 기반암 노출이 없는 모래로 된 갯벌이지만 남쪽의 독대섬 근처와 북쪽의 관당리 근처는 암석질 갯벌을 이루고 있음
- 암석질 갯벌에는 예부터 독살을 만들어 고기를 잡았으며, 근래에는 굴, 바지락을 양식하고 있음. 중앙의 모래로 된 갯벌에는 반짇 등 해초가 많고, 민들조개, 맛조개, 큰구슬우렁이, 소라, 개불 등 해산물이 풍부함
- 독대섬 앞에 있는 섬인 거치레는 사리때 육지와 연결된다. 섬의 동남쪽에 큰 사리 때만 드러나는 사질갯벌이 있는데 참맛이 특히 많음.



웅천읍 독산리 갯벌



웅천읍 소항리 갯벌

그림 10. 웅천읍 독산리 및 소항리 갯벌

## 9. 웅천읍 소항리 갯벌

- 웅천읍 소항리 부사방조에서부터 독산리에 이르는 갯벌임. 웅천천 하구와 가까운 지역으로 기반암이 노출된 곳은 없고,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사방조제를 만들기 이전에는 통달산 남쪽 웅천천하구와 연결되는 곳에 백합 조개가 많이 서식했었음.
- 현재 이 갯벌에는 맛조개, 큰구슬우렁이 등이 많이 잡힘.

## 2.1.4 인문 및 산업 현황

### 가. 인구

- 2006년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보령시 인구는 총 108,526명으로 충청남도 총인구 2,000,844명의 5.4%에 해당함. 보령시의 면적이 충청남도의 6.6%에 해당하므로 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속함.
- 1925년부터 2005년까지 80여 년 동안 보령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보령시 인구는 1925년에 74,940명이었음. 이를 18세기 중엽의 인구 43,000여 명과 비교하면 160여 년 만에 32,000여 명이 증가한 것임.
- 이 후 보령시의 인구는 일제시대, 8.15해방, 6.25사변 등을 겪으면서도 계속 증가되어 오다가 1970년대부터 주포, 천북, 청소, 남포, 웅천, 주산면에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대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나타내었음.
-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읍면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대천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가 일어나 현재의 보령시 지역 인구는 해방직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룩된 공업화, 도시와의 진전과 더불어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출(移出)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인구 이동의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하겠음

- 1995년 보령시의 총인구는 122,604인, 2005년 97,176인으로 10년 동안 총 25,428인이 감소하여 20.7%의 감소율과 연평균 2.1%의 감소율을 나타냄으로써 절대 인구의 감소수나 그 비율에 있어서 가장 큰 시기임

표 15. 보령시의 인구 증감

	1925	1935	1944	1955	1966	1975	1985	1995	2005
계	74,940	86,930	93,246	118,166	150,338	157,882	144,877	122,604	97,176
대천	8,408	11,161	12,343	17,848	28,729	42,285	51,791	56,184	54,067
주포	6,336	7,373	7,526	10,116	13,692	13,487	11,781	2,417	1,904
주교								8,265	5,326
오천	7,909	9,555	10,273	11,322	13,561	13,710	9,977	6,799	4,613
천북	5,441	6,901	7,106	8,475	10,794	10,461	7,655	6,038	3,808
청소	5,640	7,021	7,765	10,216	11,658	9,803	7,446	5,085	3,200
청라	8,783	9,472	9,861	12,196	12,908	13,462	11,018	6,836	4,436
남포	6,802	7,496	8,036	10,775	14,421	12,421	9,495	7,151	5,163
웅천	9,151	10,576	12,378	14,907	17,932	16,811	14,221	11,439	6,983
주산	7,505	8,254	8,936	11,217	11,914	10,101	6,858	4,786	2,928
미산	8,965	9,121	9,022	11,114	14,715	15,325	14,635	3,197	1,895
성주								4,407	2,853

(자료: 통계청, 2006)

- 특히 도시 지역인 대천 지역에서도 인구의 감소가 처음으로 일어난 시기이며,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는 5%의 인구증가가 있었으므로 보령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25.7%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음. 이 시기에도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이출이 많았고, 또한 노인층 인구가 많고 출생율은 낮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감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보령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도 읍면지역이 매우 높은데 특히 주산, 청소, 미산면의 경우 30%에 이르고 있음.

## 나. 산업현황

### 1. 농업

- 보령시 면적 568.9km<sup>2</sup> 중 농경지는 150.8km<sup>2</sup>로 전체의 26.5%임. 이는 우리나라 평균 18.3%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충남의 평균 경지율 30.9%보다는 낮은 편임
- 그 중 논은 106.7km<sup>2</sup>로 전체 면적의 18.8%이고 밭은 44.1km<sup>2</sup>로 전체 면적의 7.8%이임. 논밭의 비율은 71 : 29 정도로 논이 월등히 많음.

표 16. 농경지 현황 (단위 km<sup>2</sup>)

구분	합계	농경지				임야		기타	
		소계	%	전	답	면적	%	면적	%
전국(A)	99,600	18,240	18.3	7,190	11,050	64,805	65.1	16,555	16.6
충 남	8,598	2,657.8	30.9	821.8	1,836	4,489.8	52.2	1,450.4	16.9
보령시(B)	568.4	150.8	26.5	44.1	106.7	336.5	59.2	81.1	14.3
B/A(%)	0.6	0.8	-	0.6	1.0	0.5	-	0.5	-

자료 : 충남 통계연보, 2005년도 말

- 보령시의 농가인구는 9,235가구 24,35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2%에 불과함(2006). 이는 1973년의 농가인구비율 71%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으며, 절대 인구수로는 1973년 농가인구수의 22%에 불과하였음

표 17. 보령시 연도별 총인구 및 농가인구 추이

연도별	총가구 (호)	총인구 (명)	농가				농가호당 인구
			농가수(호)	비율(%)	농가인구(명)	비율(%)	
1973	25,567	156,397	18,373	71.9	111,183	71.1	6.0
1992	35,545	131,108	12,972	36.5	45,835	35.0	3.5
1995	36,451	123,023	12,066	33.1	39,849	32.4	3.3
1998	38,901	122,356	11,872	30.5	37,162	30.4	3.1
2001	39,281	116,546	11,126	28.3	31,748	27.2	2.9
2004	40,222	109,401	9,325	23.2	25,572	23.4	2.7
2006	41,991	108,526	9,235	22.0	24,350	22.4	2.6

자료 : 보령시 통계연보, 2006년도의 전국 농가인구는 총 인구 대비 6.8%임

## 2. 광업

- 보령지역의 1912년부터 1983년까지 설정된 광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석탄관련 광업권이 전체 265건 중 123건으로 46.4%를 차지하여 단연 으뜸이고, 다음은 금·은·아연광 45건(17.0%), 석면 25건(9.4%), 규석 24건(9.1%), 규사 22건(8.3%), 활석 기타광(9종) 26건(9.8%)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령지역의 부존 지하자원은 금·은·아연·석탄·흑연·규사·석면·규석·활석 등임을 알 수 있음.

표 18. 주요 지하 자원 광업권 설정현황(1912년~1983년)

단위:건수

합계	금·은·아연	석탄·흑연	규사	석면	규석	활석기타 (9종)
265(100%)	45(17.0%)	123(46.4%)	22(8.3%)	25(9.4%)	24(9.1%)	26(9.8%)



### 3. 공업

- 고정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전력에서 1978년 전원(電源)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하게 되었으며, 80년대 들어와서는 농촌의 공업화 정책으로 당시 대천시에서는 요암 농공단지, 보령군에서는 주포 관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1991년말 준공하여 기업체 입주가 시작되었음

표 19. 보령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m <sup>2</sup> )	입주업체수	종업원
합계	7개소	7	8,950,532	90개소	3,398명
국가산단	보령화력	주교면고정,송학,오천면오포	5,895,495	1	865
지방산단	관창산단	주교면관창,주포면관산,봉당	2,442,000	12	1,140
산업단지	소계	5	613,037	77	1,393
	웅천	웅천읍 구룡리 2-8	171,306	24	375
	웅천석재	웅천읍 대창리 959-2	108,638	25	111
	주포	주포면 관산리 320-14	128,566	15	376
	주산	주산면 야룡리산 244-1	117,842	1	210
	대천	요암동 74	86,685	12	321

2008년 현재

- 지역 산업단지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되어 웅천농공단지가 92년 말, 주산농공단지가 95년 말, 웅천석재전문화단지가 98년에 각각 준공되어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했음
- 보령지역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연안 간척지와 섬 지역에 10개소(67.8헥터)의 염전에서 연간 3,000여 톤의 소금을 생산해 왔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고 타 개발 사업으로 염전이 이용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하나둘씩 소금생산을 중지하고 양식장, 논, 대지, 발전소 부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음

표 20. 등록된 염전 현황(2008년 현재)

염전명	대표자	소재지	면적(m <sup>2</sup> )	운영 여부	비고
학성염전	전병남	천북면 학성리673외1필	28,731	×	양식장
원산도염전	장의분	오천면 원산도리184-558	60,740	×	
장고도염전	성원모	오천면 삼시도리832외8필	46,772	×	

- 보령지역의 건설업은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 등 개발사업 붐을 타고 보령지역에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활동하였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건설 업체로는 국민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를 건축하던 유성건설(대표 조철원, 당시 근로자 수 45명)과 보령종합경기장, 아파트 등을 건축한 서오개발(대표 신흥식, 근로자수 160명) 신영건설(대표 이강노), 한진건설(대표 김주환) 등이 있어서 건축과 토목분야의 시공을 했음

표 21. 건설 업체 현황(단위 : 개소, 2008년 현재)

합계	측량설계업체				시공업체			비고
	계	건축설계	토목설계	측량	계	일반건설	전문건설	
273	29	11	5	13	244	22	222	

- 자동차 정비업은 보령시의 자동차 등록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도 그에 비례하여 발전해 왔음. 1960년대 대천동 188번지(대천우체국 부근)에 중앙화물, 중앙여객, 중앙공업사를 창업, 보령지역 최초의 차량운송 정비업체를 운영하였으며, 그 무렵 동대동 835-7번지에도 부산공업사가 창업하여 영업을 했는데 현대적 자동차

정비업의 시작은 이 무렵이었음. 1970년대 이후 국산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그에 맞춰 자동차 정비업소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표 22.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단위 : 개소, 2008년 현재)

계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업체수	근로자수	업체수	근로자수	업체수	근로자수	업체수	근로자수
99	248	13	97	4	12	82	139

○ 조선업은 목수들의 손에 의하여 주로 어선을 건조하는 것이었으나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해운업이 발달하고 어업도 원양어업 등을 위해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조선 소재도 금속과 합성수지(FRP)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보령지역에도 현대적 장비를 갖춘 공장형 조선업체가 등장하여 각종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맡아 하고 있음.

표 23. 선박 건조·수리 업체 현황(단위 : 건조능력, 실적-톤, 2008년 현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조능력	근로자수	건조실적	창업년도
대형조선(주)	이경자	주교면 송학리 584	50,000	80	20,000	1990
미산조선공업(주)	한용상	오천면 영보리 351	1,000	9	500	1993
여남조선소	이정훈	" " 170	1,000	5	400	1958
녹산FRP선박	박원규	웅천읍 구룡리 2-4	150	6	30	1997
장은FRP조선소	조종필	천북면 장은리 192-1	20	2	20	2003

- 머드(MUD) 화장품 생산은 1994년에 진흙 맞사지로부터 시작하였으며, 화장품의 제조는 (주)태평양과 제휴하여 1996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화장품 원료 규격허가를 받아 그 해 6월 드디어 보령산 머드 화장품인 머드팩, 보디클렌저, 비누, 샴푸가 출시되었음.
- 2008년 현재 국내 우수 화장품 생산업체에 원료인 머드 파우더를 공급하여 모두 19종의 화장품을 OEM방식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고, 시 직영으로 파우더와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과 머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머드를 알리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보령머드축제는 이제 세계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표 24. 머드화장품 생산 판매 현황(2007년말 현재)

생산업체수 (개소)	화장품종류 (종)	판매망 (개소)	판매액 (백만원)	시 자체 운영생산			
				비누	파우더	체험관	종사원
6	21	127	2,179	10만장	5톤	579.9평	23

#### 다. 사회·문화

- 교육기관으로는 2003년 현재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6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있으며 이 밖에 주포면에 충청남도청 청소년야영장이 있어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 교통은 장항선 철도가 시의 서부를 남북으로 달리고 있으며, 남포·옥마를 연결하는 남포선이 석탄수송을 위해 설치되어 있음
- 도로는 장항선과 병행해 국도가 지나고, 대천에서 청양·공주로 연결되는 국도와 부여·논산으로 통하는 국도가 시의 동서로 통과하고 있어 편리함. 서해안 고속도로가 보령시를 관통함으로 인하여 타 시도로부터

터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함.

- 대천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 연구와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있음.  
향토문화행사로 해마다 9월 30일 만세보령문화제가 열리고 민속놀이로 등바루놀이·등불써기놀이가 있음.

#### 라. 문화재

- 해안경관이 아름답고 유서 깊은 유적지가 많아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미산면에 있는 성주사지(사적 307)는 신라시대의 사지로 성주사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국보 8)·성주사지 서삼층석탑(보물 47)·성주사지 중앙3층석탑(보물 20) 등 문화재가 많음
- 남포면에는 남포읍성과 진서루·최고운 유적 등이 있고, 그 밖에 오천면 외연도리에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의 울창한 상록수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
- 또한 조선시대에 오천에 수사영이 있을 때 선정된 한산사·고소대·구양루·황학루·상사봉·오로봉·영보정·선림사 등은 오천팔경으로 유명함
- 해안관광지로 웅천읍의 무창포해수욕장과 오천면의 원산도해수욕장, 대천에는 대천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상업지대가 형성되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음

## 2.1.4 수산업 현황

### 가. 어업 가구 및 인구수

- 보령지방의 어업에 관한 최초의 통계는 1964년 통계연보에 실려 있는 1963년의 통계임. 1963년의 어업 가구는 2,315가구로 2005년 2,342가구와 비슷하여 40여 년 동안 어업 가구 수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음
- 어가 인구는 1963년 13,577명이었다가 1980년대에 2만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5,918명에 불과함. 어가의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은 호당 인구의 감소 때문이다.
-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1963년 234가구로 전체 어업 가구의 10%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29%에 이르러 전업가구가 크게 증가하였음.

### 나. 어선 보유 현황

- 1963년 보령지방의 어선은 478척, 1,520톤이었고, 이중 94%가 무동력선이었음. 이후 어선의 수와 톤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1400여척 6,700여 톤으로 증가하여 척수는 약 2.9배, 톤수는 4.4배 증가하여 어선이 대형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점차 동력선으로 변화하여 1980년대 이후는 거의 100% 동력선으로 변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어군탐지기, GPS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어 어업 방식도 크게 변화하였음.

표 25. 어가 및 어가 인구 현황

연도	어 가					어가인구	
	합계	전업	겸업			계	호당인구
			소계	1종	2종		
1963	2,315	234	1293	고용788		13,577	5.86
1972	2,722					18,030	6.62
1983	3,760					20,806	5.53
1993	2,976					12,793	4.30
2003	2,633	1,491	1,242	545	597	6,921	3.00
2004	2,566	911	1,655	877	778	6,935	3.00
2005	2,342	685	1,657	862	795	5,918	3.00

자료: 보령시 통계연보(2007)

- 적당 어획량을 비교하면 1963년 11.26톤이던 것이 2006년에 14.37톤으로 불과 3.11톤 증가하였고, 어선 톤당 어획량을 비교하면 1963년 3.54톤이 2006년 2.90톤으로 0.64톤이 감소하였음

표 26. 어선 현황

(단위 : 척,톤)

연도	총 계		동력선		무동력선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963	478	1,520.00	30	419.00	447	1,101.00
1973	812	2,322.14	123	1,107.89	689	1,214.25
1983	1,460	4,102.84	1,438	4,084.65	22	18.19
1993	1,461	5,854.98	1,370	5,694.33	91	160.65
2003	1,442	6,563.00	1,408	6,542.00	34	21.00
2006	1,309	6,490.00	1,288	6,477.00	21	13.00

다. 어항

- 보령지방의 어항은  
 연 안 항 : 대천항  
 국가어항 : 오천항·외연도항

지방어항 : 원산도항 · 고대도항 · 녹도항 · 무창포항 · 효자도항 · 장고도항 · 삼시도항 · 호도항

어촌정주어항 : 학성항 · 죽도항,

육지소규모항(정주어항) : 고정항 · 송학항 · 사호항

도서소규모항 : 월도항 등 9개 항구로

표 27. 어항 현황(2009. 9월 30일 현재)

항종	항명	위치	어선 수	항내 수면적	항내 수심	지정년월일	관리청
			1399				
연안항	대천항	신흑동	290	23.6km <sup>2</sup>	4	70.07.28	국토해양부
국가어항	오천항	오천면 소성리	144	12,000m <sup>2</sup>	4-6m	71.12.21	농림수산부
	외연도항	오천면 외연도리	116	157,000m <sup>2</sup>	4-5m	71.12.21	"
지방어항	원산도항	오천면 원산도리	45	85,500m <sup>2</sup>	3-4m	72.08.07	충청남도
	고대도항	오천면 고대도	51	15,600m <sup>2</sup>	2-4m	72.08.07	"
	녹도항	오천면 녹도리	29	232,000m <sup>2</sup>	4m	72.08.07	"
	무창포항	웅천읍 관당리	95	238,000m <sup>2</sup>	3-4m	72.08.07	"
	효자도항	오천면 효자도리	35	20000m <sup>2</sup>	2-4m	72.08.07	"
	장고도항	오천면 장고도	57	240,000m <sup>2</sup>	2-4m	74.11.25	"
	삼시도항	오천면 삼시도리	60	204,500m <sup>2</sup>	4m	90.12.31	"
	호도항	오천면 호도	38	285,000m <sup>2</sup>	5m	90.12.31	"
어촌정주어항	죽도항	남포면 월전리	46	104,800m <sup>2</sup>	4m	04.11.20	보령시
	학성항	천북면 학성리	87	42,200m <sup>2</sup>	2m	04.11.20	"
정주어항	고정항	주교면 고정리	73				"
	송학항	주교면 은포리	18				"
	사호항	천북면 사호리	12				"
도서소규모항	월도	오천면 효자도리	33				"
	육도	오천면 효자도리	28				"
	허육도	오천면 효자도리	11				"
	추도	오천면 효자도리	9				"
	소도	오천면 효자도리	16				"
	명덕도	오천면 효자도리	6				"
	저두	오천면 원산도리	30				"
	초전	오천면 원산도리	50				"
	진고지	오천면 원산도리	11				"
밤섬	오천면 삼시도리	9				"	



- 총 28개 항구가 있고 각 항구에 1,399척의 어선이 정박하면서 조업하고 있음
- 이 중 가장 많은 어선이 정박하는 어항은 대천항으로 290척의 어선이 정박하고, 다음은 오천항 144척, 외연도항 116척이었음.
- 그리고 무역항인 보령항이 있음

**라. 어업현황**

- 보령지방의 어업은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등 다양한 어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안어업에 있어서 1973년도에는 전체 어선의 35.7%가 연승, 28.2%가 자망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연안복합, 연안자망, 개량안강망, 연안통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어획되는 어종은 1960년대에는 노래미, 갈치, 조기, 서대, 강달어, 반지, 송어, 가자미, 홍어, 병어, 전갱이 순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멸치, 키조개, 대구, 뱀어, 꽃새우, 아귀, 가자미, 오징어, 꼴뚜기, 소라, 쭈꾸미 순으로 어획되었음
- 보령지방에 잡히는 주 어종이 1960년대에는 갈치, 조기, 서대(박대)였으나 2000년대에는 멸치, 키조개, 대구로 변했음.

**표 28. 어업방법별 어선수 현황(1973)**

	안강망	자망	유망	연승	운반	양식	기타	계
어선수	23	229	5	290	36	86	143	812
비율	2.8	28.2	6.2	35.7	4.4	10.6	17.6	100.0

표 29. 어업허가 및 신고처분 현황(2007년말 현재)

구분		건수	구분		건수	비고
합계		8726	근 해	잠수기	14	
연안어업	소계	2024	어업	어획물운반업	10	
	연안자망	731	구 획 어업	소계	661	
	삼중자망	39		정치성	647	주목495, 각망29, 남장망123
	연안남장망	10		이동성	14	실뱀장어
	연안안강망	2	신 고 어업	소계	6010	
	개량안강망	135		맨손어업	5936	
	양조망	11		나잠어업	73	
	연안복합	750		투망어업	1	
	연안통발	117	내 수 면 어 업	소계	6	
	새우방(조망)	229		육상양식어업신고	2	
근 해 1) 어업	25	투망어업		2		
	근해형망	1		자망어업	2	

자료: 보령시 해양수산과

표 30. 어종별 어획량 순위(단위: 1000kg)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961-1963	어종	노래미	갈치	조기	서대	강달어	반지	송어	가자미	홍어	병어	전갱이
	어획량	2,232	1,066	494	231	197	144	69	63	50	33	27
1998-2007	어종	멸치	키조개	대구	뱅어	꽃새우	아귀	가자미	오징어	꼰두기	소라	쭈꾸미
	어획량	4,160	2282	1,013	581	495	342	339	184	169	120	118

표 31. 보령수협 연도별 어종별 어획량(1998~2007, 단위: 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13,660	12,331	12,338	11,661	11,035	7,284	9,110	13,079	18,805	15,915
어류	6,004	3,837	6,620	7,772	6,274	3,612	6,230	9,518	13,067	10,534
갑각류	1,600	1,524	1,075	903	1,029	705	277	404	1,055	951
패류	5,662	4,763	2,753	1,772	2,450	1,841	2,010	2,683	3,411	2,857
연체동물	393	717	287	428	348	210	556	460	1,270	1,569
해삼			-	1		-	-	-	-	3
김		1,490	1,602	834	934	916	36			

자료: 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 보령지방의 어획량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1998년보다 많은 15,915톤을 기록하였으며, 종류별로 볼 때 어류와 연체동물은 1998년보다 많았으며, 갑각류, 패류는 1998년보다 많이 감소한 경향을 보임

#### 마. 양식업

- 보령시 도서 지역 및 육안(陸岸)은 20m 내외의 낮은 수역으로 전복 살포식 양식, 미역·김 부류식 양식 시설이 적합하며 간석지는 사질, 니질, 사니질, 사니패각질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굴 투석식과 바지락 양식 시설에 적합한 지역이 많음

- 서북부의 천북면과 오천면 연안에서는 바지락 살포식 양식, 굴 투석식 양식, 김 부류식 양식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외해에 면한 오천면 도서 지역에서도 전복, 해삼 살포식 양식을 비롯하여, 각종 패류 양식이 성행하고 있다. 천수만 남부에는 가두리 어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굴 양식은 간석지 또는 해안 연안의 간조선 부근을 이용하는 투석식 양식 방법을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천북면을 중심으로 간석지에 줄을 매어 부착시키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음.
- 바지락 양식은 간석지 및 간조선의 해수의 흐름이 빠르지 않으면서 사니질인 곳을 이용하여 주로 살포식 양식 방법을 쓰고 있음
- 김 양식은 1970년대까지 지주식 양식이 대천천 하류지역과 은포리 지역, 무창포 지역에서 이루어 고 1980년대 들어서에는 부류식 양식이 개발되어 지주식 양식방법은 거의 사라졌음. 최근에는 부류식 김양식도 축소되고 있으나 구이김 가공업이 발달되어 많은 기업형 김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음
- 축양(가두리) 양식은 자연산 어류의 고갈과 양식 방법의 개발 등으로 1990년대부터 성행하고 있음. 보령 지방에서도 섬 주변의 해안을 이용, 어류 축양(가두리)양식이 실시되어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그 중 대표적인 종은 조피볼락(우럭)임.
- 양식장의 총면적은 2,462.12ha이며, 해조류가 288.00ha, 패류양식이 232.30ha, 어류양식이 64.82ha, 복합양식이 181.00ha, 마을어업이 1,697ha이였음.

표 32. 어업면허(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처분 현황

(2007년말 현재, 면적단위: ha)

경영형태별 품종별		계		개인		협업		법인(주)		수협		어촌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138	2,473.12	8	48.47	13	40.35	1	10.00	1	240.00	115	2,134.30
양식업(계)		137	2,463.12	8	48.47	13	40.35	1	10.00	1	240.00	114	2,124.30
해 조 류 양 식	소계	4	288.00							1	240.00	3	48.00
	미역(연승식)	1	36.00									1	36.00
	계	3	252.00							1	240.00	2	12.00
	김 지주식	2	12.00									2	12.00
	부류식	1	240.00							1	240.00		
패 류 양식	소계	44	232.30	6	33.80	9	36.75					29	161.75
	굴(투석식)	1	5.00									1	5.00
	바지락	5	51.00									5	51.00
	가무락	1	3.00	1	3.00								
	홍합(살포식)	1	5.00			1	5.00						
	새고막	1	10.00			1	10.00						
	전복	33	151.80	5	30.80	6	15.75					22	105.25
	가리비	2	6.50			1	6.00					1	0.50

표 33. 어업면허(어류양식, 복합양식, 마을어업) 처분 현황

(2007년말 현재, 면적단위: ha)

품종별		경영형태별		계		개인		협업		법인(주)		어촌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어류양식	소계	22	64.82	2	14.67	4	3.60	1	10.00	15	36.55		
	계	18	45.82	1	10.67	4	3.60	1	10.00	12	21.55		
	가두리식	16	25.15			4	3.60			12	21.55		
	축제식	2	20.67	1	10.67				1	10.00			
	해삼	4	19.00	1	4.00					3	15.00		
복합양식	소계	7	181.00							7	181.00		
	김, 바지락	6	161.00							6	161.00		
	굴, 바지락	1	20.00							1	20.00		
마을어업	소계	60	1,697.00							60	1,697.00		
	해삼, 전복	40	807.50							40	807.50		
	개조개	2	28.00							2	28.00		
	바지락	14	421.50							14	421.50		
	새조개	4	440.00							4	440.00		

○ 양식장의 총면적은 2,462.12ha이며, 해조류가 288.00ha, 패류양식이 232.30ha, 어류양식이 64.82ha, 복합양식이 181.00ha, 마을어업이 1,697ha이었음.

○ 보령시 관내 어촌계는 모두 23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교어촌계(1,250명)이며, 그 다음이 신희수협, 소영어촌계 순이었음. 어장면적은 장고도어촌계(317.5ha)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점지어촌계, 진창어촌계 순이었음.

표 34. 어촌계 현황

권리자	구성원 수(인)	종류	품종	면적 (ha)	어장위치
계	4,180			2,389.3	
신흑수협	733	해조류양식	김	240	신흑동 다보도지선
현포어촌계	71	마을어업	바지락	10	신흑동
주교어촌계	1,250	마을어업	바지락	138	주교면 송학,은포
군현어촌계	140	마을어업	바지락	40	신흑동
점치어촌계	120	해조류,어류,패류,마을어업 등	김,전복해삼,바지락,새조개,어류 등	291.8	오천면 원산도, 증도지선
진창어촌계	143	마을어업,복합양식,패류어업 등	전복해삼,김,바지락,새조개,굴 등	271.5	오천면 원산도지선
선진어촌계	106	마을어업,어류,복합양식 등	해삼전복,어류,김,바지락 등	118.45	오천면 원산도지선
효자도어촌계	65	마을어업,어류 등	어류,바지락,전복해삼 등	38.5	오천면 효자도리, 명덕도
육소어촌계	60	어류,패류,마을어업 등	어류,바지락,전복해삼	24.8	효자도 소도,추도,월도,육도 지선
장고도어촌계	75	마을어업,패류,복합양식 등	전복해삼,김,바지락,가리비 등	317.5	오천면 장고도 지선
삼시도어촌계	120	패류,마을어업,해조류,어류양식 등	전복해삼,김,바지락 등	255	오천면 삼시도지선,납작도,불모도 등
녹도어촌계	71	마을어업,패류양식 등	해삼전복,개조개 등	120	오천면 녹도지선,대화사도,기름암,추도 등
호도어촌계	35	마을어업	해삼전복,바지락	90	오천면 호도지선,오도,상하홍서,수도 등
고대도어촌계	54	해조류,마을어업,패류,복합양식 등	미역,전복해삼, 김,바지락	112	오천면 고대도리
외연도어촌계	132	마을어업,패류,어류양식 등	해삼전복 등	172.25	오천면 외연도,변도,대청도,세여,관장도 등
무창포어촌계	180	정치어업,패류,어류양식,마을어업 등	농어,민어,바지락,어류,전복해삼,새조개,굴 등	139.5	웅천읍 독산지선,관당리 석대도,남포면 등
소영어촌계	268	마을어업	바지락	2	오천면 소성리
학성어촌계	247	마을어업	바지락	5	천북면 학성리
사호어촌계	131	마을어업	바지락	3	천북면 사호리,장은리
낙동어촌계	53				천북면 낙동리
광암어촌계	58				웅천읍 소항리
증산어촌계	19				주산면 증산리
어항어촌계	49				신흑동

바. 수산가공업

- 보령의 수산가공품은 예부터 짓갈류와 염장품, 조미가공품이 생산되었으나 근래 들어 염장품의 생산이 줄어들고 조미 가공품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음.

표 35. 수산물 가공품 생산현황

(단위 :M/T, 천원)

품목	2004		2005		200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건품	-	-	-	-	24	61,500
자건품	299	2,522,000	344	2,343,710	286	1,764,682
염장품	-	-	-	-	630	428,531
염신품	1,512	17,041,733	3,219	20,041,733	6,070	51,375,999
냉동냉장	7,745	8,441,101	9,955	7,873,879	10,990	8,515,848
해조류	1,387	9,256,02	286	2,728,461	5,445	9,552,310
한천	51	438,766	4	7,700	32	48,810
연제품	5,021	5,293,958	4,488	4,796,232	655	1,373,113
조미가공품	315	1,235,679	915	9,370,113	1,669	14,713,798
기타	2,635	2,110,292	2,678	2,150,637	1,673	4,179,049
총계	18,965	38,009,131	21,889	49,312,465	27,474	92,013,640



- 보령의 수산가공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을 보면 냉동 냉장이 수량적으로는 제일 많으면서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었으며, 금액으로 볼 때 염신품이 많고, 그 다음이 조미가공품임
- 새우젓은 주로 서해안에서 어획되는 젓새우를 원료로 함. 젓은 담는 시기에 따라 동백젓, 오젓, 육젓, 추젓 등의 명칭으로 구분한다. 5~6월에 어획하여 담그는 것을 육젓이라하는데 새우가 가장 살이 오른 철에 담근 것으로 맛도 좋고 젓국도 좋음. 10월경이 되면 젓이 숙성하여 김장 때 쓰기에 알맞다. 특히 보령 지방에서는 토굴 속에서 숙성시켜 타 지방의 새우젓보다 맛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강하여 가격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냄.
- 김의 종류는 50여 종이 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여 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양식 종은 방사무늬 김 및 참 김이며 그밖에 둥근 김, 둥근 돌김, 모무늬 김 등이 있다. 마른 김은 가공 방법에 따라 재래식과 개량식이 있는데, 재래식은 사라졌음. 제품의 규격은 21×19cm, 무게는 100장에 240~290g이 표준이다. 또 마른 김은 파래의 혼입 정도에 따라 흑해태와 혼해태로 나누기도 함. 최근에 보령시 지역에서 김 가공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사업이 발전하고 있음.
- 마른 김을 적당한 조미료를 배합하여 굽는 공장으로 보령지방에는 수십 곳의 공장이 가동 중임. 판매도 우편판매, 인터넷판매 등으로 선진화하여 보령지방의 대표적인 수산가공품으로 자리 잡고 있음. 최근에는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 바. 어업단체

- 보령의 수산관련 어업인 단체는 표 36와 같음

표 36. 보령시 관내 어업인 단체

단체명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최대윤	2,685	대천동 154-3
신흥수산업협동조합	유병두	733	신흥동 1895
잠수기수협 서해지소	오태철	30	우천면 소성리 700
사)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박영선	51	신흥동 950
사)보령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편권식	300	신흥동 대천항로419
충남개량안강망협회	이기준	58	신흥동 950
해산어류종묘협회	현병돈	11	천북면 학성리 560
등대영어법인	장복현	23	신흥동 1634
대천항통발영어조합법인	박만두	22	심흥동 2243-2
충남연안안강망냉장망영어조합법인	김동철	9	대천동 293-6
해우영어법인	강덕웅	6	신흥동 1775-146
신항영어법인	고영욱	140	신흥동 545-5
바다영어법인	박 철	35	신흥동 유성산호 103-205
사호선주협회	정재동	18	천북면 사호리550-1
학성선주협회	홍인수	36	천북면 학성리21-10

○ 보령의 수산관련 어업인 단체 수산업협동조합이 2곳, 지소가 1곳, 협회 4곳, 영어조합법인 6곳, 선주협회 2곳이었음.

○ 전체 회원수는 1,457명이며,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 2,685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신흥수산업협동조합, 사) 보령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순으로 나타났음

○ 소재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천항이 있는 심흥동에 분포하고 있음

○ 보령시수산업협동조합

- 보령시 대천동 154-3번지에 위치하며 1962년 4월 1일 보령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1972년 1월 1일 보령군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고

1975년 7월 28일 신용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77년 4월 1일 보령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고 본점을 1978년 2월 4일 신흑동 950번지에서 대천동 204-1번지로 이전하고 1980년 10월 15일 다시 대천동 206-3번지로 이전하였음.

- 1981년 3월 6일 홍성군수협을 흡수 합병하여 보령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고 홍성지소(홍성읍 오관리 382-8번지)와 광천지소(광천읍 광천리 189번지)를 개소하였고, 1981년 12월 31일 광천지소를 폐쇄하고 1986년 1월 1일 대천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여 1989년 4월 1일 홍성지소를 상호금융점으로 전환하였으며, 1990년 11월 9일 청사와 신용점포를 현재의 소재지(대천동 154-3번지)에 신축이전하고 원동지소를 개점하였음
- 1995년 1월 1일 보령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고 1996년 4월 25일 동대지소를 개소하였으며, 1997년 5월 20일 지소를 지점으로 개칭하여 홍성, 원동, 동대지점으로 하였음. 1999년 12월 6일 신용부를 폐쇄하고 상호금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월 9일 원동지점, 7월 20일 홍성지점을 폐쇄하고 5월 1일 주포법인어촌계를 인수하여 주교지점을 개점한 후 10월 26일 주교지소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4년 4월 1일 폐쇄하였음.
- 기구 및 정원은 임원은 조합장과 상임이사 1명, 비상임 이사 9명, 상임 감사 2명 등 13명이며, 1실 10과 1지소 2지점 1사업소를 두고 있다. 기구표와 역대 조합장은 다음과 같으며 직원은 총 68명임
- 주요 업무로는 어촌소득증대, 연안 어장 정화, 수산자원조성, 어장관리 지도, 어업인 교육,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등 지도사업과 면세유류 공급, 선수물자 및 어업용 기자재공급 등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가공업, 공제사업, 상호금융 사업 등이 있음.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구매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류 100,955드럼(12,018백만 원)을 공급하였으며, 수산물 위탁판매고 43,045백만 원, 이용가공사업 판매 370백만 원이었음.

## 2.2 관광 현황

### 2.2.1 관광자원 현황

#### 가. 일반현황

- 1997년 1월 18일에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를 합쳐 정부는 보령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서해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관광지 조성이나 축제 조성에 기를 띄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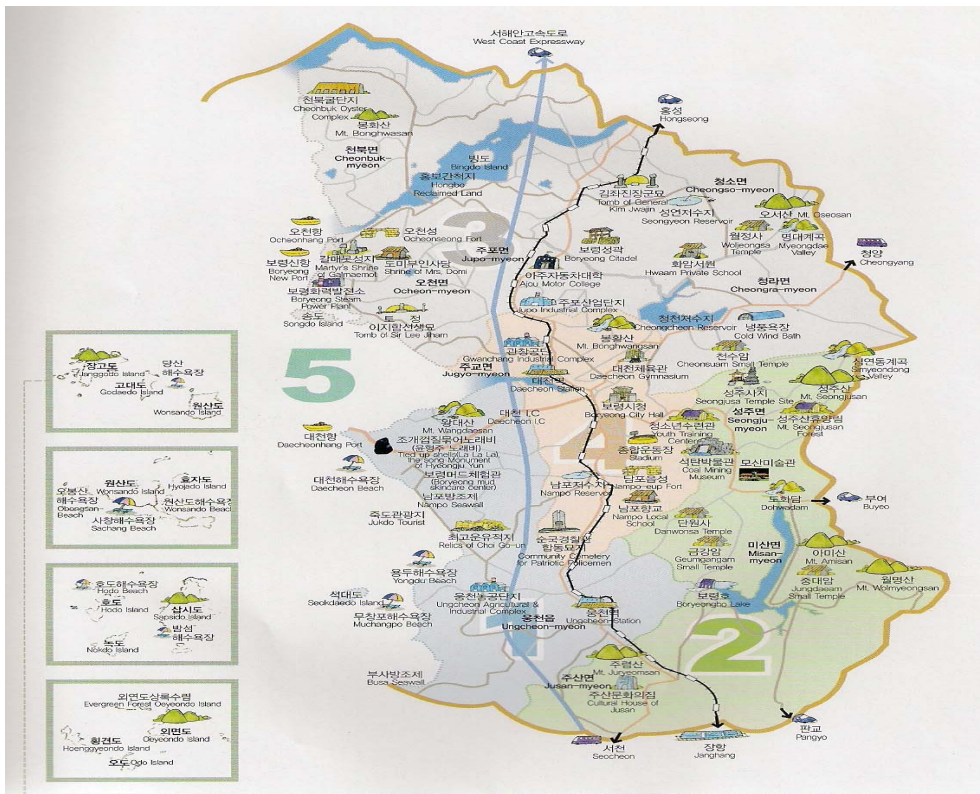


그림 11. 보령시 관광권역

- 보령시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제1권역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대천항 등을 보령관광특구와 바다가 연계된 곳이며, 제2권역은 보령시의 동남쪽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문화와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관, 석탄박물관 등 휴양과 체험시설이 연계된 곳임
- 제3권역은 오서산, 오천항, 천주교 성지, 발전소 등 우리 민족의 혼과 산업단지와 연계된 곳임. 그리고 4권역은 충남의 서부 중앙에 위치하여 서편에는 114.9km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고, 남북으로는 장항선 철도와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21호선이 동서로는 국도 36호와 40호가 가로질러 서해안 교통이 중심 임. 보령시 중심권이 있는 곳임. 제 5권역은 섬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이 접목되어 있는 곳임
- 보령시의 축제는 보령머드축제를 비롯하여 보령천굴 축제, 해님이 축제, 무창포대하·전어 축제, 무창포주꾸미·도다리 축제,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 성주산단풍 축제, 주산벚꽃맞이 축제가 있음

표 37. 보령시 축제현황

축제명	개최지역	행사일	행사내용
보령머드축제	대천해수욕장	7.11-7.19	체험행사, 기획전시, 연계행사
보령천굴축제	천북면 장호리	12.6-12.7	체험행사, 굴 바로알기, 부대행사
해님이 축제	대천해수욕장	12.31	송년행사 및 불꽃놀이
무창포대하전어 축제	무창포항	9.11-19.5	시식회, 체험행사, 부대행사
무창포주꾸미·도 다리축제	무창포해수욕 장	3.21-4.15	체험행사, 시식행사, 부대행사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축제	무창포	7.23-7.25	해불어업재현, 조개·독살어업체험
성주산단풍축제	석탄박물관	10.31-11.1	단풍나무심기, 부대행사
주산벚꽃축제	보령댐	4.11-4.12	향토음식전시 및 시식, 부대행사

## 나. 관광지

### 1. 대천해수욕장

- 대천해수욕장은 젊음과 낭만, 안락함과 자연미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젊은 연인들에게는 추억 만들기의 장소로서, 또 가족 단위의 휴식처로서, 해양스포츠의 메카로서 제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이런 이유로 대천 해수욕장에는 한해 1천만명에 육박하는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이자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음.
- 먼저 규모면에서 백사장의 길이가 3.5km 폭100m에 달하는 대형이고, 백사장 남쪽에 기암괴석이 잘 발달되어 있어 비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수온 역시 적당하여 기분 좋은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음
- 30대 외국인 휴양지로서 자리잡아 개발의 역사가 깊은 만큼 휴양객들의 편의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숙박시설 역시 손색이 없음. 또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개발계획으로 현대적 편의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여행객의 몸과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하고 있음.
- 성수기인 여름에는 대천해변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해 여러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해변조각공원과 아티스트,아코트, 아베로에스 길목을 조성하여 여행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
- 대천해수욕장만이 간직한 특성의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음. 예컨대 보령산 머드팩이 그러하다. 세계최고의 품질이라는 보령 해안가의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머드하우스에서 직접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임.

- 대천해수욕장은 관광객이 여름에 집중되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겨울바다의 낭만과 함께 각종 겨울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여름에 견줄 만큼 겨울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임. 그밖에 여행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여름시청과 여름경찰서가 설치 운영되며, 각 유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전국의 해수욕장 중에서 처음으로 조각 공원을 설치해 여행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녹지에 자리잡은 공원은 문화 공간인 동시에 지방예술인의 전시공간 역할을 함께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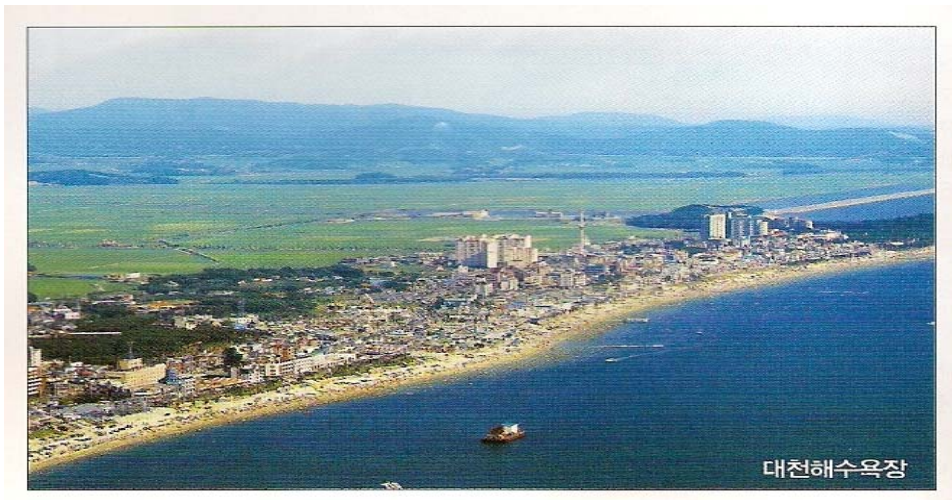


그림 12. 대천해수욕장

## 2. 무창포 해수욕장

-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으로 백사장 길이 1.5km 수심1~2m, 백사장 50m, 수온 섭씨 22도, 경사도 4도의 해수욕장으로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하여 해수욕과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가 있음.
- 매월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을 전후하여 2~3회 해변에서부터 석대도까

지1.5km의 바닷길이 열리는데 그 신비한 장관과 바닷길을 따라 게, 조개 등을 잡는 재미가 솔솔하며. 기암괴석, 해송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운치를 더하는 무창포 해수욕장은 주변의 바다낚시와 풍부한 지하수 등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음.



그림 13. 무창포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

### 3. 성주산휴양림

- 성주산휴양림은 차령산맥이 빗어낸 아름다움이 뛰어난 곳으로 성주면 성주리의 화장골계곡은 4km에 이르는 울창한 숲이 장관인 계곡으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임.
- 화장골이란 이름은 성주산 일대에 모란형 명당이 8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곳 화장골에 감추어져 있음. 화장골계곡 충남도내 11개소의 명수(名水)의 하나 충청남도에서는 97년 각 시.군으로부터 수질과 인근 자연환경이 뛰어난 계곡, 폭포, 하천등 31개소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대전산업대 환경공학과 유병로 교수팀과 현지조사를 벌여 '99년 4



월 25일 최종적으로 11개소를 확정발표 하였음

- 이중 화장골계곡이 충남 명수 11개소 중의 하나로 선정된것은 화장골계곡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청정지역임을 입증함. 성주산휴양림은 도로를 닦고 위락시설도 갖추고 있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우거진 숲과 맑은 물이 감도는 구곡계곡은 선경을 연상케하고, 아름다운 극치를 이루는 가을단풍은 대자연의 신비를 만끽케 함.



그림 14. 성주산 자연휴양림

#### 4. 보령호

- 1998년 10월 준공 하였으며 성주산(성주면)과 성태산(외산면)에서 발원된 두 개의 작은 하천이 만나 이루어지는 웅천천에 댐을 막아 물을 가두어 미산면 풍계리·용수리·평라리 등이 호수에 잠기고 아미산·양각산의 허리까지 물이 들어 참
-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령호를 감싸고 나있는 이설도로를 따라 푸른물

을 감상하며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색다른 멋을 즐길 수도 있으며 보령댐 주변 아미산(해발575m)에는 중대암이 있고, 양각산에는 용암영당(문화재자료 제141호)이 있어 보령호는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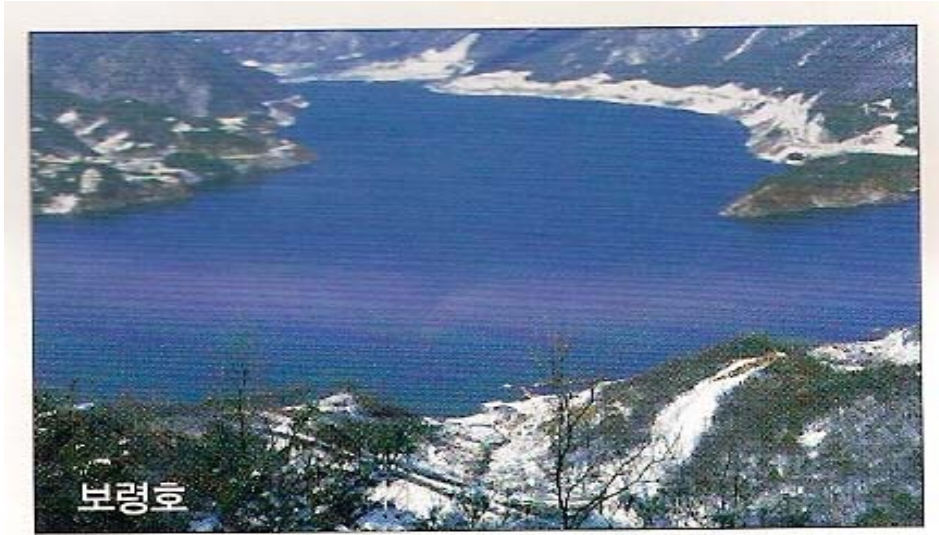


그림 15. 보령호 전경

## 5. 오서산

- 오서산은 보령을 대표하는 산으로, 우리나라 서해 연안의 산 중에서는 가장 높으며 백두대간 차령산맥 끝자락인 금북정맥의 최고봉(790.7m)임. 보령시(保寧市)를 비롯하여 홍성군(洪城郡), 청양군(靑陽郡)에 걸쳐 3개 시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서, 울창한 숲과 깊고 맑은 물이 어우러져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임
- 정상에서 보면, 수채화처럼 펼쳐진 역새 물결과 서해의 수평선 그리고 서해 낙조를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으로 성주산, 북으로는 가야산, 동으로는 칠갑산, 계룡산까지 관망할 수 있어 육.해.공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가는 소중한 진귀한 산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오서산은 이름 그대로 까마귀와 까치가 많이 깃들여 사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보령 주변의 여러 명칭이 이에 유래한 것이 많음. 또한 육중한 무게감을 바탕으로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산세와 굽이치는 능선 그리고 완만하게 펼쳐진 정상부는 명산의 요건을 빠짐없이 두루 갖추고 있어 등산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 특히 서해 바닷길의 길잡이로서 ‘서해의 등대’라 불리기도 하며(일설에 의하면 서해바다 멀리 외연도쪽에서 바라보면 검게 보이는 산이라서 오서산이라 하였다는 말도 있음). 가을 정취를 한껏 뽐내는 은빛 억새 능선이 유명함



그림 16. 오서산 전경

## 6. 외연열도

- 바람이 잔잔한 새벽이면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외연도는 보령시에 속해 있는 70여개의 섬들 중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해의 고도임. 대천항에서 약 5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웨스트 프런티어호인 쾌속선으로 꼬박 1시간 반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섬임
- 새 하얀 해무가 섬을 감쌀 때가 많아 연기에 가린 듯하다는 의미로 외연도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짙은 해무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하늘로 솟아오른 듯한 세개의 산 봉우리와 함께 멋진 경관을 펼치며 주위의 자그만한 섬들을 호위하듯 거느리고 불쑥 나타나 신비함을 더해주는 섬임
- 면적은 0.53km<sup>2</sup>로 약 16만평의 조그만 섬이지만 일찍이 서해안 어업의 전진기지로 옛날에는 해마다 조기과시가 형성될 만큼 어장이 발달한 곳임. 현재는 160여 가구에 550여명의 비교적 많은 주민이 포구를 중심으로 반달형의 마을을 형성하고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음.
- 본 섬의 마을 뒷산에는 우리나라 남서부 도서의 식물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136호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상록수림 안에는 수백년된 동백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수목 등이 3헥타르의 면적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서 있음.
- 숲의 면적은 3ha에 불과하지만 이곳에는 수세기 동안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온 동백나무뿐 아니라 후박나무, 식나무, 둔나무, 붉가시나무 등의 상록 활엽수와 팽나무, 상수리나무, 고뢰쇠 나무, 찰피 나무 등 수백년된 아름드리 낙엽 활엽수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군을 형성하

고 있음. 또한 이 곳 상록수림 안에는 각기 다른 뿌리에서 자란 두 그루의 동백나무가 이어진 틈새가 없이 공중에서 맞닿아 하나의 가지로 연결된 신기한 사랑나무가 자라고 있음. 옛부터 사랑하는 남녀가 이 나무 사이를 통과하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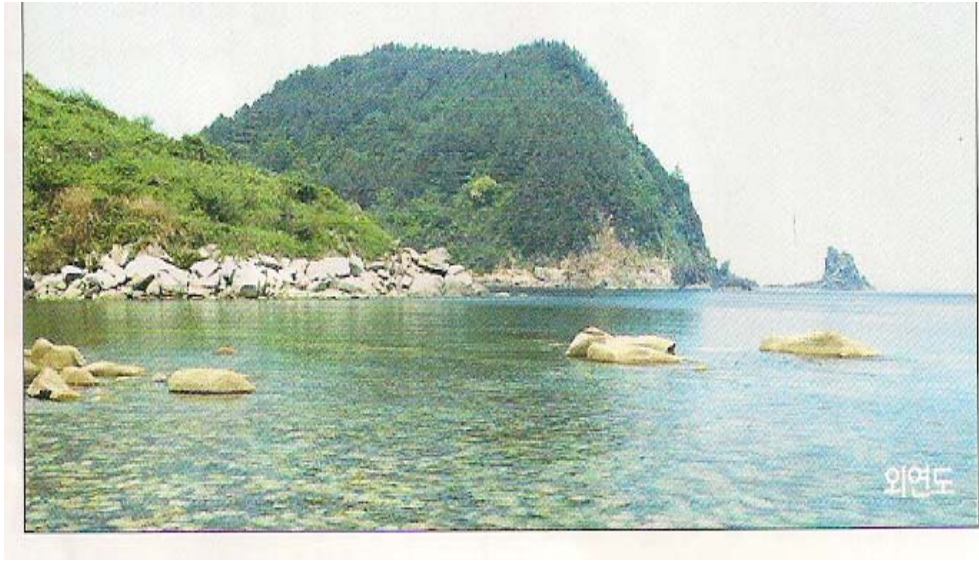


그림 17. 외연도 전경

## 7. 오천항

- 오천은 예전부터 보령 북부권의 삶과 생활의 중심지였으며, 보령 북부권의 모든 길들은 오천과 통한다는 말에서도 이를 알 수 있고, 실제로 주포, 주교, 청소 등 오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만 세 갈래나 됨.
- 예전의 영화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오천항은 천수만 일대의 주요 어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음. 오천항은 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까닭에 방파제 등 별도의 피항시설이 필요 없을 만큼 자연적 조건이 좋

은 곳임. 따라서 방파제 없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선착장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음.

- 1일과 6일에 서는 오천장을 찾으면 각종 해산물과 만날 수 있고, 특히 오천항에서 이루어지는 잠수기어업으로 채취한 키조개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특산물이고,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홍합역시 인기임.



그림 18. 오천항 전경

## 8. 월전죽도

- 보령시 남포면에서 서남쪽으로 8.1km, 최치원 유적지가 있는 보리섬 서쪽 1.5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옛날 대나무가 울창하였던 섬이라하여 대섬 또는 죽도라 부르게 되었음.
- 대천해수욕장에서 3km 떨어져 있는 남포 방조제와 연계되어 있는 섬으로 대천 해수욕장과 남포 방조제 끝머리에 있는 용두 해수욕장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이고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 펜션 및 편

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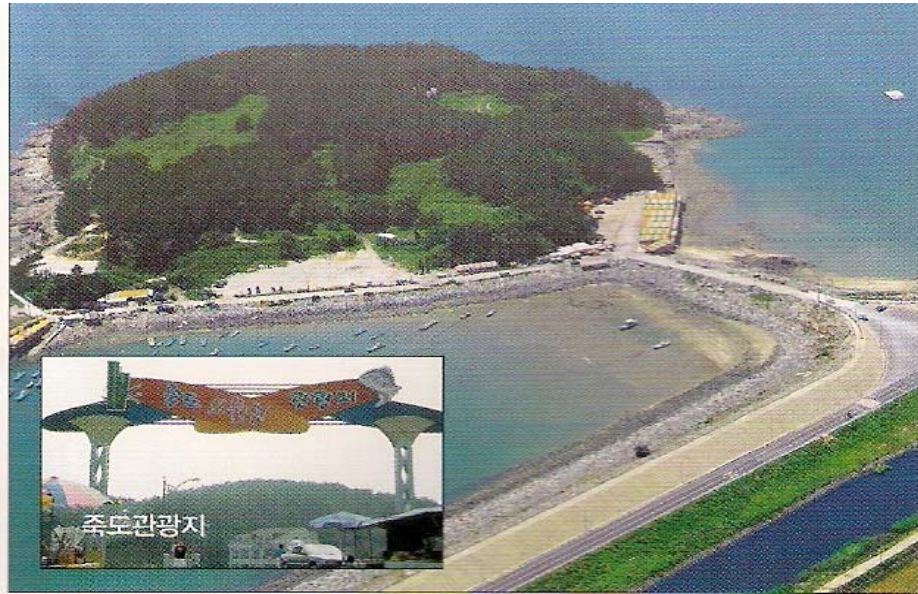


그림 19. 월전죽도 전경

#### 다. 보령의 관광코스

- 보령의 관광코스는 대부분 보령 8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대천항이 포함되어 있음.
- 1일관광은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대천해수욕장, 대천항, 성주사지, 보령호, 개화예술공원, 석탄박물관,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돌아오는 코스임.
- 1박2일관광은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외연도를 거쳐 대천항에서 끝나는 코스임

**1일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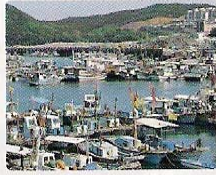
**One-Day Tour**



**무창포해수욕장**  
Muchangpo Beach



**대전해수욕장**  
Daecheon Beach



**대전항**  
Daecheonhang Port



**성주사지**  
Seongjusa Temple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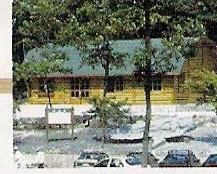
**보령호**  
Boryeongho Lake



**개화예술공원**  
Gaeхва Arts Park



**석탄박물관**  
Coal Mining Museum



**성주산 자연휴양림(화장골)**  
Mt. Seongjusan Natural Forest (Hwajanggol)

**1박2일관광**

**Two Days and One Night**



**무창포해수욕장**  
Muchangpo beach



**보령호**  
Boryeongho Lake



**개화예술공원**  
Gaeхва Arts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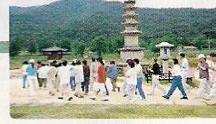
**석탄박물관**  
Coal Mining Museum



**섬(외연도)**  
Island (Oeyoondo Island)



**대전해수욕장**  
Daecheon Beach



**성주사지**  
Seongjusa Temple Site



**성주산 자연휴양림**  
Mt. Seongjusan Natural Forest



**대전항**  
Daecheonhang port



- 2박3일관광코스는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출발 하여 외연도, 대천항, 보령시가지를 거쳐 오서산에서 끝나는 코스와 오서산에서 출발하여 오천성, 대천항, 갈매못성지, 대천해수욕장, 죽관광지를 거쳐 무창포해수욕장에서 끝나는 2개의 코스가 있음.



## 2.2.2 관광실태

### 가. 관광산업 현황

#### 1. 관광숙박업

- 2008년도 보령시의 숙박업 수는 75개로 호텔 10개, 모텔 59개, 여관 3개, 콘도 3개 및 펜션 1개가 있으며,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신항동이 대부분이고, 용두해수욕장에 1개, 무창포해수욕장에 4개 있으며, 보령 시내 및 기타가 23개 있음
- 객실 수는 12실을 가진 모텔에서 83실을 가진 호텔까지 있으며, 대체로 30실에서 50실이 대부분임

#### 2. 모범음식점

- 2008년도 보령시의 모범 음식점 수는 186개로 불고기, 삼계탕, 해장국 등을 취급하는 한식당 118집, 생선회를 위주로 하는 일식당 59집, 양식당 6집, 중식당 3집으로 되어 있음.

#### 3. 관광업 종사자 수

- 보령시에서 관광과 관련한 종사는 운수업 종사자,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 및 예술, 스포츠, 여과관련 서비스업에 종사자이며, 이에 관련된 종사자 수는 표 34와 같음

표 38. 보령시 관광관련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2001	437	1,039	1,835	4,112	214	459
2002	499	1,163	1,936	4,564	216	481
2003	534	1,134	2,068	4,813	242	520
2004	526	1,090	2,079	4,764	245	466
2005	538	1,367	5,229	8,359	268	564
2006	529	1,149	2,135	4,850	247	501
2007	527	1,122	2,096	5,156	208	458

○ 보령시의 관광 관련 업체나 종사자 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IMF의 영향으로 판단됨

나. 해수욕장 이용객

○ 보령시에 산재하는 해수욕장 중 규모가 큰 곳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원산도해수욕장, 용두해수욕장, 호도해수욕장임. 이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을 때가 856만에서 1,874만명으로 대부분 1,000만명을 상회하고 있음. 연도별 이용객 수는 표 39와 같음

표 39. 보령관내 해수욕장 면적 및 이용객 수

단위 : 천명, m<sup>2</sup>

연도	총면적	이용객
2003	2,827,417	14,827
2004	2,827,417	8,557
2005	2,827,417	11,944
2006	2,827,417	12,329
2007	2,827,417	18,737

자료 : 2008 보령시통계연보

- 2007년도 보령 관내 각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는 표 40과 같으며, 대천해수욕장이 16,742,511명으로 전체 18,736,503명의 89.4%를 차지하고 있음

표 40. 2007년 보령관내 해수욕장 면적 및 이용객수

단위 : m<sup>2</sup>, 명

해수욕장 명	면적	이용객 수
대천해수욕장	2,150,000	16,742,511
무창포해수욕장	262,417	1,787,210
원산도해수욕장	100,000	112,492
용두해수욕장	165,000	63,580
호도해수욕장	150,000	30,710

자료 : 2008 보령시통계연보

## 제3장 대천항의 여건 분석

- 3.1 대천항 현황
- 3.2 관련계획조사
- 3.3 여건 종합분석

## 제3장 대천항의 여건 분석

### 3.1 대천항 현황

#### 3.1.1 대천항 구역과 시설 현황

##### 가. 대천항의 기본 현황

###### 1. 개발목적

- 충남·중부 일원의 어업 전진기지로 개발
- 태안반도 일원의 여객선 안전 운항시설 확보

###### 2. 항만연혁

- '70.07.28 : 연안항 지정(대통령령 제 5235호)
- '86 ~ '95 : 1단계사업(물양장, 방파제 축조)
- '96.09 : 항만기본계획 고시(1차)
- '02.03 : 여객터미널 준공(연면적 3,790㎡)
- '02.12.31 : 대천항 기본계획고시(해수부 2002-114호)
- '05.11.18 : 대천항 기본계획(변경)고시(해수부 2005-89호)
- '06.01.31 : 보령시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결정고시(충남2006-19호)

###### 3. 항만현황

- 위치: 충남 보령시 신항동 일원
- 항계 : 송도 서단 ~ 신항도 서단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



그림 20. 대천항 전경

#### 4. 항세확장 및 주요 항만시설 현황

○ 항세확장을 위한 계획은 표 41과 같음.

표 41. 대천항 항세확장

구분	해상구역 (km <sup>2</sup> )	육상구역(m <sup>2</sup> )				정온수역 (m <sup>2</sup> )
		계	기본구역	개발구역 (매립지)	준설토 투기장	
면적	22.9	323,834	19,997	176,106	127,731	157,000

○ 주요항만시설은 표 42과 같음

표 42. 대천항 주요 항만시설

구분	물양장 (m)	에이프런(m <sup>2</sup> )	여객터미널 (m <sup>2</sup> )	주차장 (m <sup>2</sup> )	방파제(m)	야적장 (m <sup>2</sup> )	돌제부두(기)	부잔교 (기)	도로 (m)
규모	1,296	25,920	8,369	21,096	1,220	24,925	1	2	1,960

### 3.1.2 대천항 이용 현황

#### 가. 여객이용객수 및 화물처리량 현황

○ 여객이용객 수 및 화물처리량 현황은 표 43와 같음.

○ 2006년부터 이용객수는 40만명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39만명 수준이었음. 화물차 대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승용차도 섬을 찾는 관광객 수의 증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43. 대천항을 이용하는 여객수 및 연간 화물 처리량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6월
연간 여객 이용객수(명)		426,364	417,028	389,823	203,407
연간 화물처리량	화물차대수	19,605	19,639	20,708	10,430
	승용차대수	29,407	29,459	31,062	15,645
	기타화물량(톤)	2,665	2,454	2,749	1,327

작성기준 : 왕복운항 산출내역임(2009년 6월말 현재)



## 나. 여객선 이용

- 대천항내에서 여객선 운항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항내 접안시설 부족으로 여객선접안시설 구역내에 어선들이 접안하여 여객 선의 접안 및 여객(차량 : 화물 및 승용)의 승하선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많음

## 다. 어선 이용

- 대천항에 선적항으로 이용하는 어선 236척, 외래선박 1일 평균 50여 척
- 근해안강망 70여척 접안으로 척당 10통(법정 어구통수입)의 근해안강망망어구 이용으로 700여통의 근해안강망어구 수선으로 어구수선장 부족
- 개량안강망 50여척 접안으로 척당 5통(법정 어구통수입)의 개량안강망망어구 이용으로 250여통의 개량안강망망어구 수선으로 어구수선장 부족
- 기타 소형어선(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어업등의 어선)이 이용하는 어구의 수선장 부족
- 충남 서남부의 거점어항으로, 모항의 역할뿐만 아니라 황천시 피항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 모항으로서의 역할 중 출어준비를 위한 어구를 수선하고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 대천항 배후부지의 공간(12,583㎡)과 준설토 투기장을 임시사용허가(63,703㎡)를 받아 이용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되면 어구를 수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빈약하여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됨

## 라. 기타 선박 이용

- 충남 서남부 도서의 공공시설(선착장, 물양장, 연안정비등)을 위한 건설자재(골재)를 야적하고, 운송할 수 있는 시설(바지선 부두)이 없어 도서의 공공시설 공사가 매우 어려움
- 충남 보령시 신후동 대천항과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연육교 공사를 위한 건설자재 적치장 및 구조물 제작장이 없어, 항만으로서의 기본 기능시설이 미비하고, 어항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임

## 3.2 관련계획조사

### 3.2.1 상위계획

#### 가. 제4차 국토 종합계획(2000년-2020년)

##### 1. 계획목표

- 각 지역이 저다마 특성을 살려나가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친환경 개발유도)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동북아의 중심교류국가로의 도약)
- 남북한 협력기반의 통일국토 건설

##### 2. 7대 추진전략

-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
- 선진생활공간 확립
- 문화-관광국토 구현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3. 제4차 국토 종합계획과 보령시 관련

- 보령시의 영역권인 군산이 환황해축의 거점으로 결정  
: 환황해축 ▶ 목포·광주 ~ 군산·전주 ~ 인천 ~ (신의주)
-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지대 구축  
: 복합기능의 단지조성·배후지역 연관 산업의 활성화  
산업도시간 연계강화
-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  
: 지역의 신개방 거점으로서 무관세 「자유항 지역」의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육성
-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을 위한 충청권 개발 방향에서 내포한 문화권  
해안지역에 해당하는 보령시는 인근 신산업지대 배후의 환황해권 해양 관광지로 육성
- 남북 7개,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  
서해안고속도로(강화~인천~군산~목포)가 보령시를 통과
- 일반철도망  
: 기간철도망 확충(장항선 확충)

## 나. 해양개발 기본계획(2000년-2010년)

### 1. 계획목표

-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

### 2. 7대 추진전략

-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 고부가가치 해양지식 산업 진흥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업 창출
-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의 상용화
-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 3. 세부내용

- 보령시는 연안통합관리계획상 서해 남부 1권역에 속하며, 산업과 환경 연안을 지향하는 다목적 연안 이용을 정책의 방향으로 함
  - 산업기반연안은 다양한 산업·경제활동이 활발한 다목적 고밀도 이용 공간 으로 ①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연안개발총량수요를 환경친화적으로 계획·조성 ②매립을 수반하는 연안개발을 향만, 임해성 산업 및 발전시설, 우량농지, 해양휴양시설 등을 선별·최소화 ③ 제 4차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 연계·체계화라는 기본 정책방향을 가짐

- 생태연안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 공간으로서 ① 주요 갯벌, 무인도, 철새도래지 등의 보호지역 지정 등 통해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②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생태교육프로그램, 생태관광, 주민 지원사업 등 실시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함

○ 해양관광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마다 특색있는 해양관광도시를 지정·육성. 보령시 및 대천항은 해변 생태 관광권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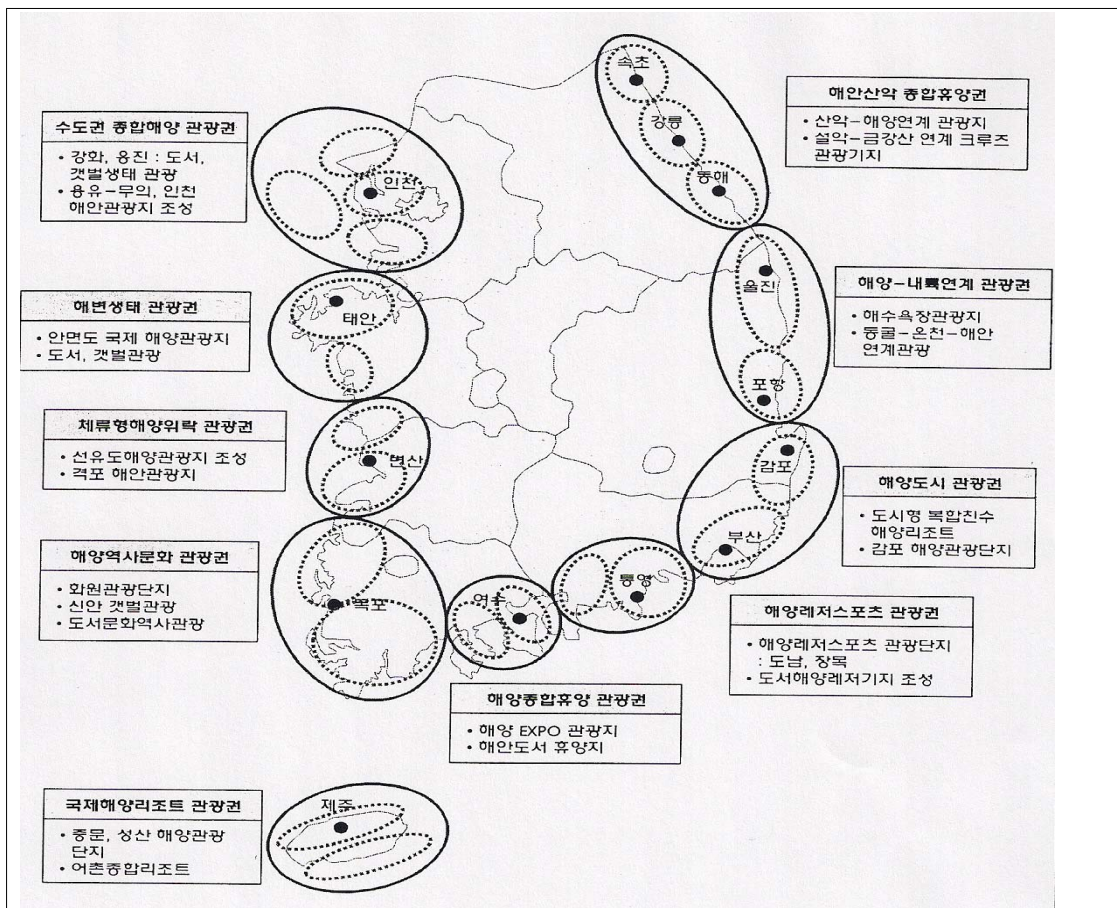


그림 21. 해양개발기본계획도

## 다. 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02년-2011년)

### 1. 계획목표

- 매력적형, 환경친화형, 지식기반형, 국민참여형, 개방형 관광한국 건설

### 2. 개발전략

- 국제적 수준의 관광 시설 개발 추진
- 지역 관광개발의 특성화 촉진
-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촉진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 국민 생활관광 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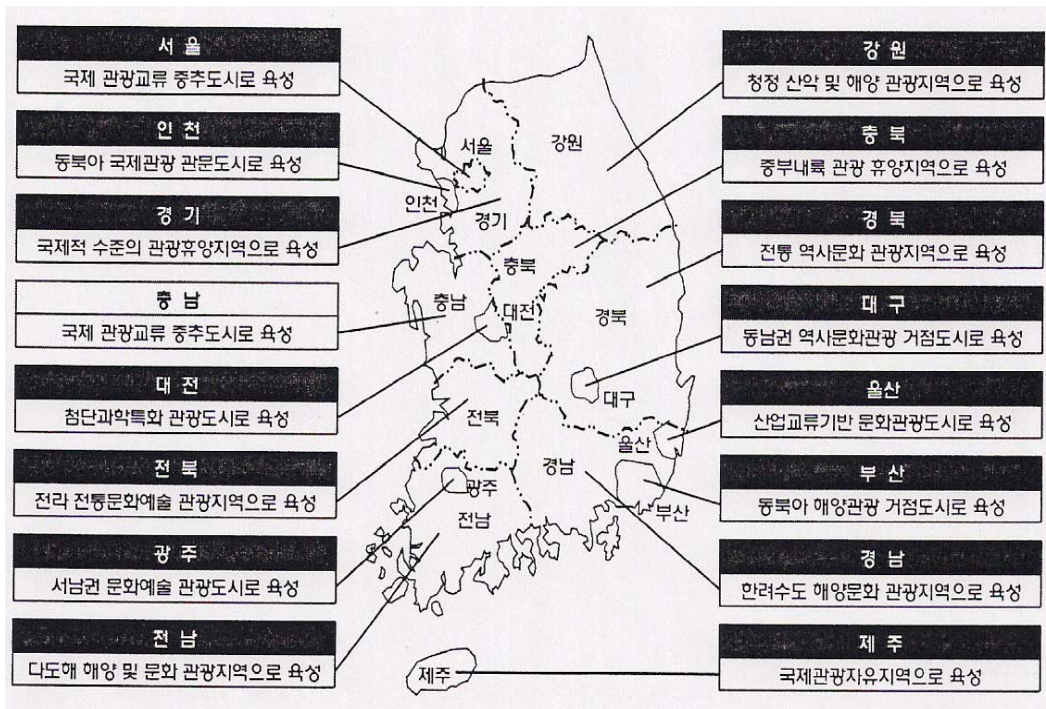


그림 22. 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도

### 3. 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충청남도권 관광개발 방향

○ 개발방향 :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역으로 육성

○ 개발전략 :

-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 국민생활 관광지 확충
- 백제문화권 관광자원화
- 농·산·어촌 및 해양생태 관광 개발

### 라.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계획(2004년-2020년)

#### 1. 계획구상

- 환황해축 구축을 위한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계획의 기초로, 환황해 경제권 중심거점, 해양 관광 중심지, 지속 가능한 전구 기반 형성을 3대 목표로 설정
- 추진전략으로 정주체계 구축, 지역 산업지식 기반화, 교통·물류 시설 확충, 관광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 2. 추진전략

- 정주체계 : 지역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발전 및 평택-보령-대전을 연결하는 신산업, 국제교류
- 산업개발 : 지역기반의 전략적 산업 집중 육성과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화 및 지식 기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 혁신 체계구  
축,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정보화 기반 확충

- 기반시설확충 : 서해안고속도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서간  
연계 교통체계 구축(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완공)
- 관광부문 : 「Hub & Spoke」 개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광역적 관광  
개발 및 관광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인프  
라 구축, 신규 관광형태에 부응한 관광자원개발
- 자연환경 : 연안, 하천, 산을 연결하는 서해안 광역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연안 경관 보전

#### 마.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0년-2020년)

##### 1. 계획의 기초 및 목표

-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 지역의 번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  
기종합발전 비전
- 인간·지식·문화·환경에 기초한 통일국토를 대비하여 역사문화·지식산업·환  
황해권 교류의 중심역할
  - 미래를 창조하는 「산업·물류·해양 중심지역」
  -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중심지역」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농업 중심지역」
  -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생활·복지 중심지역」



## 2. 7대 추진전략

- 국내외 교류협력 증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와 화합의 지역 발전
- 미래형 산업기반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인프라 구축
- 개성 있는 지역문화권 형성 및 관광개발
-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
- 맑고 깨끗한 푸른 충남 구현(환경친화적 개발⇨보전과의 조화)
- 남북교류 협력과 국제교류 등 통합국토의 핵심지역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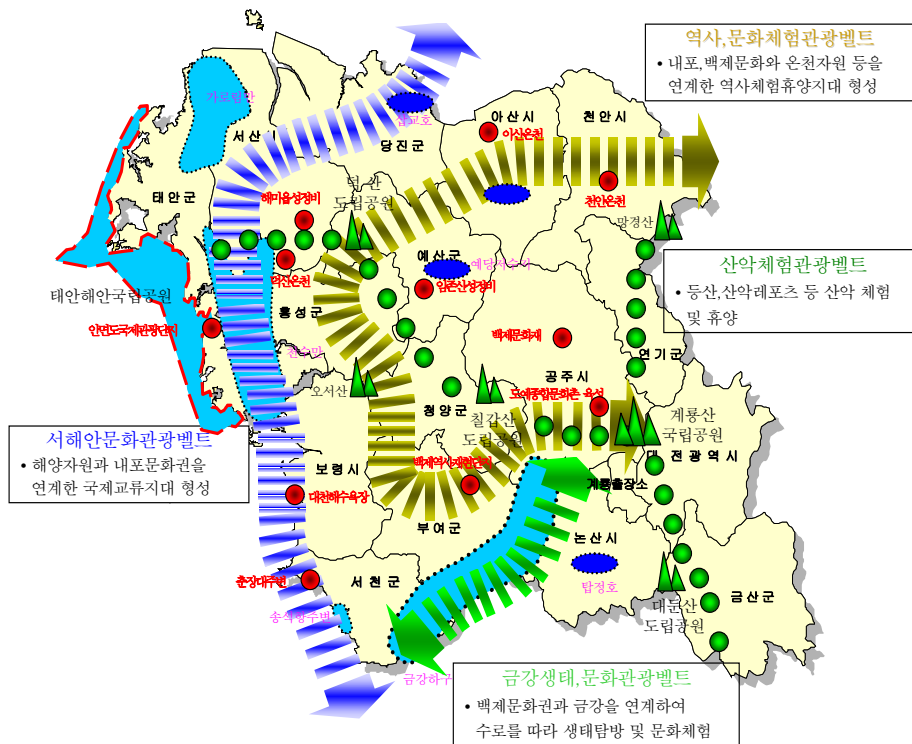


그림 23.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기본도

### 3. 세부계획

추진전략	세부계획
교류·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공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li> <li>○ 공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li> <li>○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창조적 정주생활권 형성</li> </ul>
미래형 산업기반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제일의 선진 농·임·축·수산업 육성</li> <li>○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경쟁 우위의 신산업체제 구축</li> </ul>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통합교통체계 구축</li> <li>○ 전 국토를 연계하는 물류·유통 기반 강화</li> <li>○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li> </ul>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 및 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li> <li>○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li> </ul>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자연이 조화된 선진 주거환경 조성</li> <li>○ 인간 중심의 복지·의료환경 조성</li> <li>○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문화·체육시설 확충</li> </ul>
맑고 깨끗한 푸른충남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적 토지이용·관리의 강화</li> <li>○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환경관리</li> <li>○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자원개발</li> <li>○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수·방재체계 구축</li> </ul>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국제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직접 교류·협력 확대</li> <li>○ 국제교류 기반 강화 및 민간교류·협력의 활성화</li> </ul>

## 바. 보령시 계획

### 1. 목표

- 해양휴양관광의 기반을 고루 갖춘 환황해권 교류중심도시

### 2. 추진사항

- 서해안시대를 여는 환황해·동북아권 교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경비행장, 유통단지·컨테이너기지 조성 등 복합적인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 서해안문화관광벨트의 대중적 관광중심지로서 문화관광기반 확충
  - 산업과 연계한 보령머드축제 세계화,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개설, 서해안 도서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보령신항을 미항으로 건설하여 중국·일본·북한 관광객 유치
  - 「해양~도서~산악~호반」 연계형 관광코스 개발, 폐광지구진흥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형 휴양학습공간 조성
  - 마리너시설, 해양수족관, 해양목장화사업 등 다양한 해양산업 육성
- 세계적 관광지의 배후 관광휴양도시로 육성
  - 자족적 정주기반을 갖춘 지역으로서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제적 숙박시설과 다양한 휴양·위락시설 등을 확보하여 개성과 매력의 관광휴양도시로 육성

### 3.2.2 대천항 계획

#### 가. 기본계획 필요성

- 항내 여객선운항 항로 확장 건설
  - 항내 여객선운항 항로에 어선등 기타선박이 함께 운항하여 항로 협소
  - 썰물시 관공선부두와 여객항로의 협소로 안전운항 위험 상존
  
- 항내 미 준설지역 준설 및 준설토 투기장 이용계획 수립
  - 항내 1/2의 지역에 대한 준설계획 미비로 항의 원활한 이용불가
  - 북방과제 북측에 준설토 투기장 확보하여 북측 항내 준설
  - 북방과제 북측 준설토 투기장의 화물, 어구수선, 선박기자재 보관 수시시설 이용계획수립
  - 북방과제를 이용한 어선, 기타선박의 정박지 이용 방안 수립
  
- 항만 배후부지내 화물(건설 골재)적치장 및 부두 건설
  - 항만 배후부지내 화물 적치장이 없어 도서 항만등 공사시 건설 자재적치 운반장소 없음
  - 공사 건설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화물선 전용부두 없음
  
- 항만배후단지내 선박 수리를 위한 철공소등 부지 확보
  - 선박기자재·선용품(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나. 항만시설계획

- 기본시설

- 항로 · 정박지(정박지) · 선류장(선류장) · 선회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수역시설)
- 도로등 임항교통시설(임항교통시설)
- 안벽(안벽) · 물양장(물양장) · 잔교(잔교) · 선착장 · 램프 등 계류시설

#### ○ 기능시설

-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 신호 · 조명 · 항무통신(항무통신)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 화물이송시설 ·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창고, 야적장(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저유시설(저유 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
- 선박을 위한 급유(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선박보급시설(선박보급시설)
- 항만의 관제(관제) · 홍보 · 보안에 관련된 시설

#### ○ 지원시설

- 보관창고 · 집배송장(집배송장) · 복합화물터미널 · 정비고(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선박지자체 · 선용품(선용품) 등을 보관 · 판매 ·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등을 위한 시설
- 공공서비스 · 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영시설
-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 한다)를 위한 휴게소 · 숙박시설 · 진료소 · 위락시설 · 연수장(연수장) · 주차장 · 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항만친수시설(항만친수시설)

- 유람선·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 해양박물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등 해양문화·교육시설
-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다. 항만운영계획**

- 중부지역의 거점 여객항 및 어항개발과 도서 건설자재(골재) 적치장 운용
- 공사용부두 및 작업장확보, 어선의 출어준비를 위한 공간 확보
-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잡화 및 화물부두 확보
- 항만구역내에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

**라. 기타사항**

- 항만 전면의 물양장 이용은 여객선접안, 관공선, 유람선등의 접안과 어선의 어획물 양육 등으로 활용토록하고,
- 항만 북측 북방파제를 이용한 어선접안시설 확충으로 어선의 접안은 북측방파제를 이용하고, 출어준비를 위한 제반시설 확충과
- 항만 방파북측의 준설토 투기장 확보로 화물(건설자재, 골재)적치 및 접안시설과, 어선 출어준비를 위한 어구수선 등의 공간확보 계획 수립

마. 제3차 전국 무역항(연안항)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대천항)세부 계획

1. 북방과제를 이용한 어선집안시설 확충

- 위 치 : 보령시 신후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 황 : 본 사업 대상지 남측에 물양장이 시설되어 있으나, 주로 획물 양육 및 위판과, 관공선의 집안, 여객선의 집안 및 유람선의 집안이용 등으로 이용에 혼잡한 지역임.
- 필요성 : 연안항 개발은 선박의 이용현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항만개발이 필요하지만 대천항은 충남서해안의 어업전진기지 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좁은 항만과 협소한 어선집안 시설로 항내 운항안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시설계획이 절실함.
- 개발시기 : 2012년 ~ 2017년
- 개발주체 / 개발방식 : 정부 또는 민간/ 재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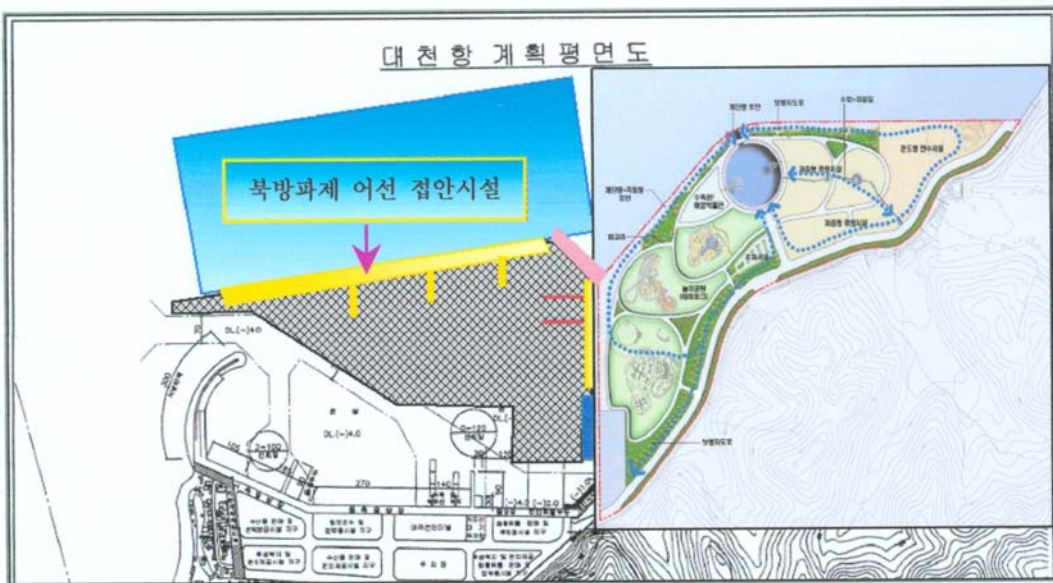


그림 24. 북방과제를 이용한 어선집안 시설 확충도

## 2. 항내준설(대천항)

- 위치 : 보령시 신흑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황 : 본 사업 대상지 항내 북측에 준설이 되지 않아 항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박의 이용에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역임
- 필요성 : 연안항 개발은 선박의 이용 현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항만개발을 위하여 현재 좁은 항만과 협소한 어선점안시설로 항내 운항안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항내준설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설계획이 절실함.
- 개발시기 : 2012년 ~ 2017년
- 개발주체 /개발방식 : 정부 또는 민간 / 재정투자



그림 25. 대천항 준설 예정 구역



### 3. 북방과제를 이용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대천항)

- 위치 : 보령시 신흑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황 : 본 사업 대상지 항내 북측의 북방과제를 이용한 준설토 투기장을 시설하여 확보되는 공간을 어선어업인들의 어구수선장 및 건설자재 적치장 등 화물부두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이 용 시설임.
- 필요성 : 대천항은 충남서해안의 어업전진기지 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업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용어선 및 선박의 안전한 항내 운항 및 정박을 위하여 준설토 투기장을 북방과제를 이용한 건설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성 필요
- 개발시기 : 2012년 ~ 2017년
- 개발주체 /개발방식 : 정부 또는 민간 / 재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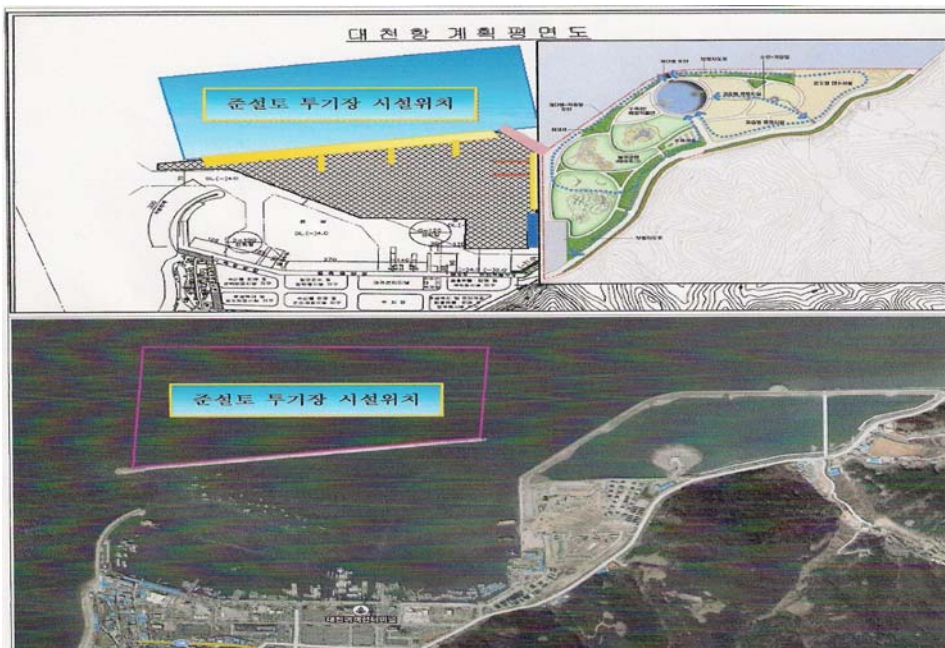


그림 26.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구역

#### 4. 선박입출항 항로확장(대천항)

- 위치 : 보령시 신흑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황 : 본 사업 대상지 항내 북측의 항로폭이 70m로 여객선 및 관광선의 운항을 위한 항로로는 이용이 가능하나 다수의 어선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항로폭이 협소한 실정으로 140m로 확장이 필요함.
- 필요성 : 선박의 출입량 증가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선박 입·출항(入出港)을 위하여 협소한 항내 항로구간의 폭원을 조속히 확장 및 증심(增深)필요. 항로확장(기존 폭 70m → 140m, 항로수심 : 4m )
- 개발시기 : 2012년 ~ 2015년
- 개발주체 /개발방식 : 정부 / 재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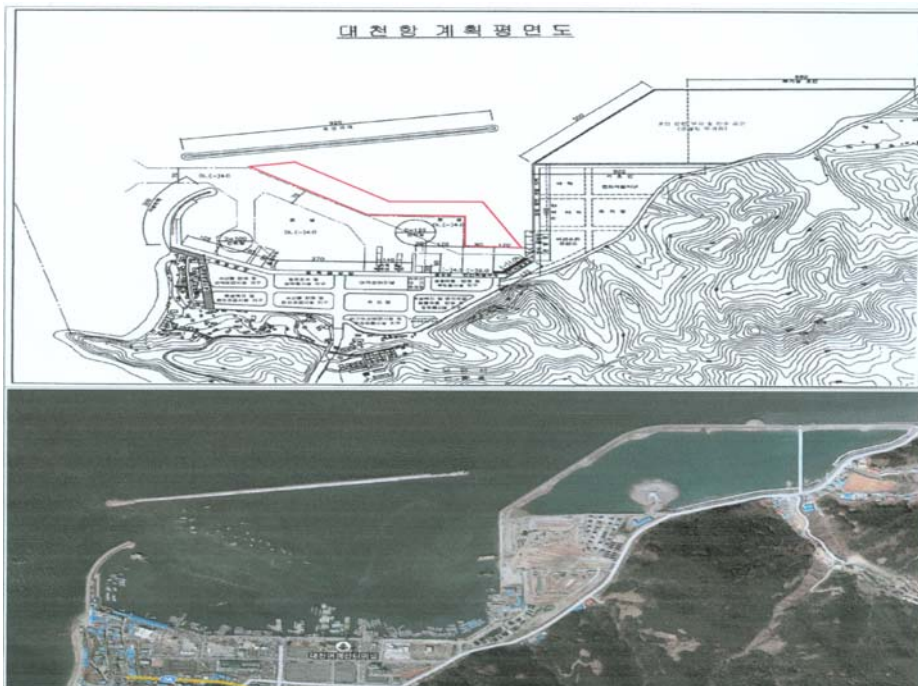


그림 27. 대천항 선박입출항 항로 확장도

## 5. 항만 배후부지내 화물 적치장 및 부두건설(대천항)

- 위치 : 보령시 신흑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황 : 북방과제 북측의 준설토 투기장 확보로 화물(건설자재 및 일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적치장 및 화물부두가 없어 도서의 항만시설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의 운반할 장소가 없는 실정임
- 필요성 : 정부의 도서종합개발 및 도서 항만 및 어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자재 및 골재를 운반할 건설자재 적치장 및 운반할 수 있는 접안 부두시설 필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골재(석재)의 반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용 화물적치장 및 화물부두건설이 필요
- 개발시기 : 2012년 ~ 2017년
- 개발주체 /개발방식 : 정부 / 재정투자



그림 28. 항만 배후부지 내 화물적치장 및 부두건설 구역

## 5. 향만 배후부지내 어구수선장 확보(대천항)

- 위치 : 보령시 신흑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황 : 대천항에 어선 236여척과 외래선박이 1일 50여척이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어구를 적재하고 수선할 수 있는 어구수선장이 부족한 실정임.
- 필요성 : 현재 동측 준설토 투기장의 친수공간 부지중 일부를 어구수선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 이용계획 변경 필요 그리고 향후, 북방과제에 준설토 투기장에 어구수선장을 확보하여 어업인들이 출어준비를 북방과제에서 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을 추가하여 남측물양장에서는 어획물을 양육하고 북측접안시설에 어선을 접안하고 출어준비를 위한 어구를 적재, 수리하는 장소의 확보계획 필요함
- 개발시기 : 2012년 ~ 2017년
- 개발주체 /개발방식 : 정부 / 재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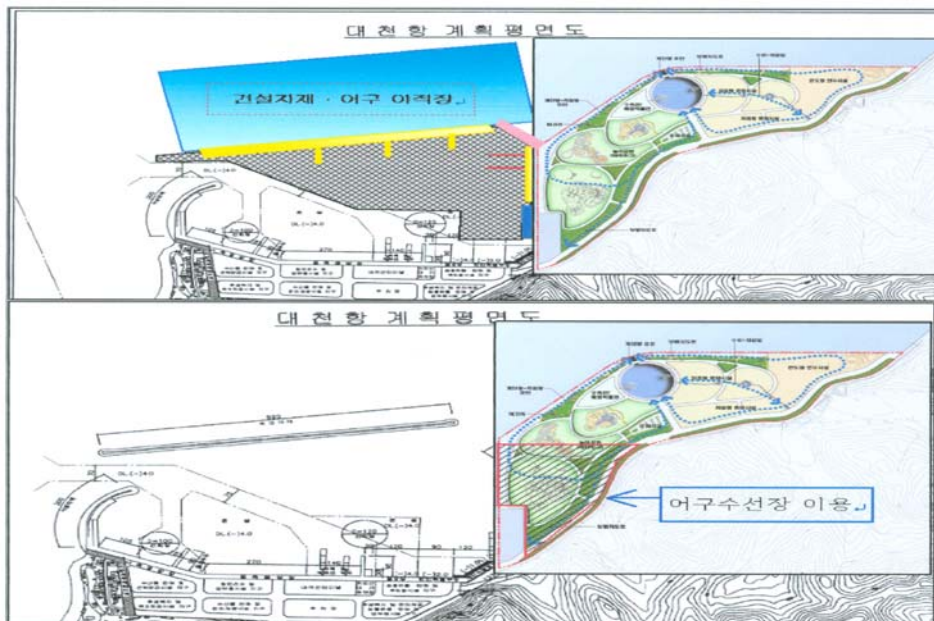


그림 29. 향만 배후 부지 내 어구수선장 구역도

## 6. 선박수리 등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 확보(대천항)

- 위치 : 보령시 신항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황 : 대천항에 어선 236여척과 외래선박이 1일 50여척이 이용되고 있으나 항만 배후시설지구에 선박을 수리하는 1개소의 조선소부지가 있으나 많은 선박을 수리하기에는 부족하고 일부 경미한 수리등을 위한 선용품 공급시설이 없음
- 필요성 : 향후 북방과제를 이용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경우에 경미한 선박수리 및 선용품과 어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지구 확보가 필요함 아울러 현재 조선소에서는 선체 등 중대한 수리를 요하는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경미한 선박의 수리는 선양장 등을 이용하여 수리할 수 있는 수리시설 부지 필요
- 개발시기 : 2012년 ~ 2017년
- 개발주체 /개발방식 : 정부 / 재정투자



그림 30. 선박수리 등 산업단지 부지 구역

## 7. 마리나 시설(대천항)

- 위치 : 보령시 신항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황 : 대천항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관광객이 다수 찾는 대천해수욕장과 인근 도서가 인접하고 있어 해양레저스포츠(요트)시설을 통하여 해양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전진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 향후 동측 배후부지를 이용하여 요트접안(계류)시설을 함으로써 배후부지내 개발계획에 포함된 숙박·콘도·연수시설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현재 수면은 썰물시 갯벌이 나타나고 있어 마리나 시설을 위해서는 준설이 선행되어야 함
- 개발시기 : 2015년 ~ 2017년
- 개발주체 /개발방식 : 정부 / 재정투자



그림 31. 요트계류 시설 구역

## 8. 북방파제 진입을 위한 교량 시설 확충(대천항)

- 위치 : 보령시 신항동 2245번지 전면해상
- 현황 : 북방파제 북측의 준설토 투기장 확보 시 진입을 위한 교량시설로 항내의 해수 유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항내 수질악화 예방 필요성 있음
- 필요성 : 연안항인 대천항의 해수유통에 따른 항내 수질정화 및 진입을 위한 교량시설이 필요하며, 대천항은 충남서해안의 어업전진기지 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좁은 항만과 협소한 어선접안시설로 항내 운항안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시설계획이 절실함.
- 개발시기 : 2012년 ~ 2017년
- 개발주체 /개발방식 : 정부 또는 민간 / 재정투자



그림 32. 북방파제 진입을 위한 교량시설 확충구역

### 3.2.3 국내외 어항 개발 사례

#### 가. 홍원항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 개발목적 :
  - 지역사회 발전 기반 조성
  - 어업활동 지원 기능 설비 정비
  - 양식업을 통한 다양한 어업소득 증대
  - 해양친수 시설 도입으로 해양관광 이미지 형성
- 도입시설

구분	먹거리	어촌체험	놀거리
도입시설	· 먹거리촌 · 유통센터 · 취수시설	· 어촌체험형 가두리 양식장 · 바다낚시터 · 마리나 선양장 및 방파제	· 해변광장 · 이벤트 무대 · 조경공사
	· 다양하고 풍 부한 해산물 체험 및 판매	· 해양친수시설로서의 기능과 체험형의 기능부여	· 지역주민, 어업종 사자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익, 휴식 공간 조성



그림 33. 홍원항 전경



## 나. 지세포항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 개발목적 :

- 수산 부문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 어촌 부문에 있어서 어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을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
-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
- 지세포항을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 도입시설

지구	시설	세부시설
해양레포츠지구	관광시설	숙박시설
		마리나
		육상보트 적치장
		광장
	상업시설	수산물 판매장
		먹거리센터
		Seafood센터
		수상카페
	문화시설	해양테마공원
		해변문화거리
수변 공연장		
육상어항기능지구	어항시설	APRON
		어항관리시설
		수산물처리가공시설
		공동창고
	보급시설	급유 및 급수시설
		냉동 및 냉장시설
	복지시설	어민복지시설
낙시테마공원지구	관광시설	수상낙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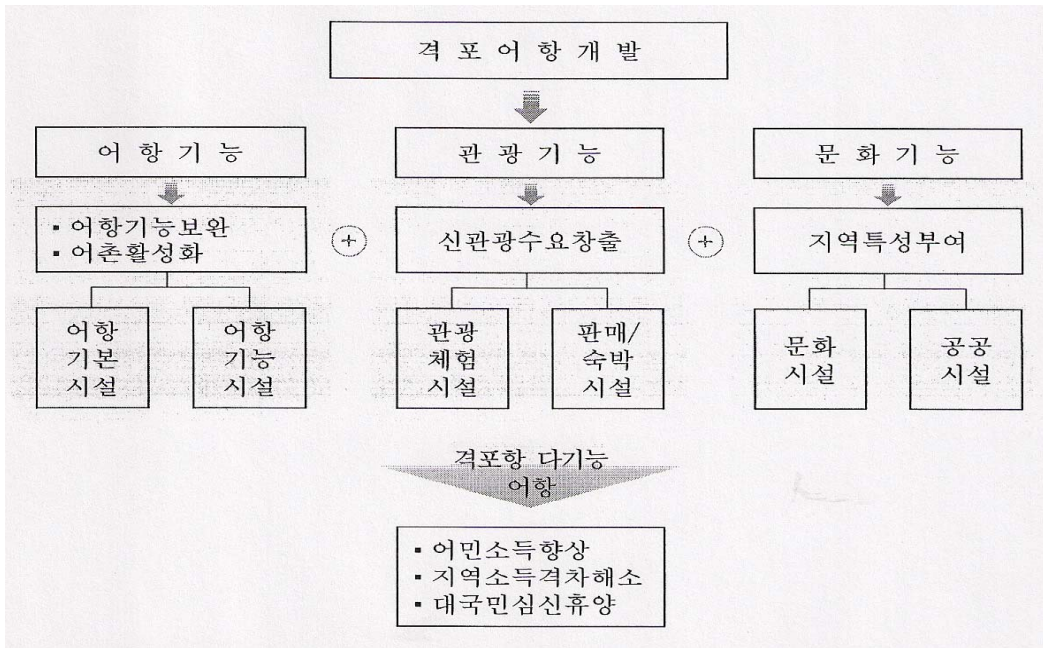
그림 34. 지세포항 전경

#### 다. 격포항

○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 개발목적 :

- 수산자원의 감소, 어장의 축소 등 어업환경의 악화와 어촌환경의 열악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격포항 해안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상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어촌으로 개발
- 서남해역의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여 어민소득 향상, 지역 소득격차 해소, 대국민 심신 휴양지로 개발



○ 도입시설

지구	시설	도입시설
육상어항지구	어항시설	바다패턴
		교량신설
		공동취수장
		호안리모델링
		집안시설
해양관광레포츠지구	관광시설	산책로
		채석장 광장
		문화의 거리
		해양관광
		분수광장
		조형시설
		함상공원
		선상카페
낙시공원지구	낙시테마공원시설	낙시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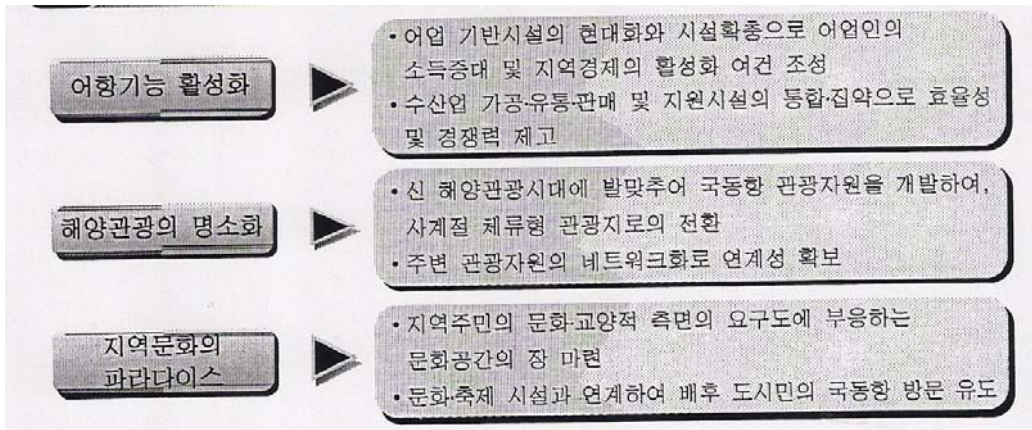


그림 35. 격포항 전경

#### 라. 국동항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국동항 일원

○ 개발목적 :



○ 도입시설

구분	시설	도입시설
기본시설	외곽시설	방파제, 파제제
	계류시설	물양장, 선양장, 선류장, 선치장
기능시설	어선·어구보전시설	어선건조, 수리장 등
		어구건조, 야적장
	보급시설	급유, 급수, 어업용 창고
	수산물 유통· 판매·보관	위판장 활어 임시보관시설
	수산물 처리 시설	제빙냉동, 처리가공시설
	어항정화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수산자원육성시설	종묘생산시설 종묘배양장
어항편익시설	문화, 복지 시설	
	관광·레저, 휴게실 등	
	광장, 조경시설 등	
	여객편익시설 등	



그림 36. 국동항 전경

### 3.2.4 외국사례

#### 가. 사노 어항

- 오오사카 이즈미시노시에 있는 어항으로 사노어항 부근 해역은 예부터 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 어항시설의 정비는 1948년부터 착수하여 1960년도에 방파제, 물양장 등의 기간 시설을 완성함
- 1962년부터 칸사이국제공항으로의 진입로인 한신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라 아항을 외해로 나아가는 이설이 행해져 1998년도에 도로건설의 일부를 제외하고 완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어업자수가 오오사카부의 제1위이며, 또한 1994년에 2종어항으로 변경 됨.
- 어항부근에는 수산식품공장이 많이 있으며, 주민을 위한 인공낚시터도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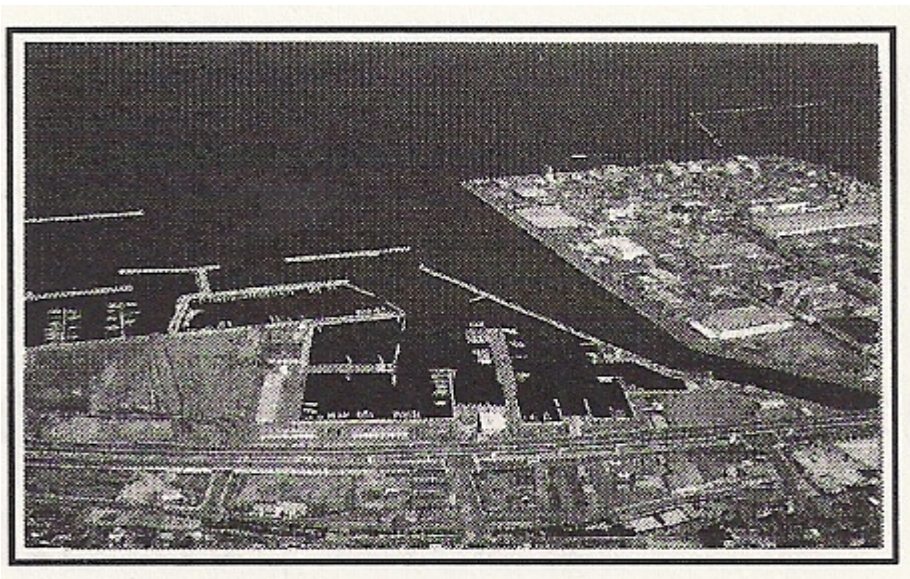


그림 37. 사노항 전경(해양수산부, 2005)



그림 38. 사노항 주변 시설(해양수산부, 2005)

#### 나. 마이쯔루 어항

- 교오토부 마이쯔루시에 위치하는 마이쯔루 어항은 50년간에 걸친 어항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안벽 3,000m, 방파제 3,700m, 호안 1,400m으로 되어 있는 기관 시설임
- 배후이비는 14,500㎡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며, 배후에는 냉장시설, 위관장, 어구건조장 등 기능시설물들이 있음
- 등록어선은 113척이며, 이용어선은 13척임



그림 39. 마이쯔루 어항의 부속 시설(해양수산부, 2005)

#### 다. 타루미 어항

- 고베시에 위치한 타루미 어항은 시설의 다기능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 요리, 판매시설을 유치하고 효고현과 고베시에서 심혈을 기울인 중점 프로젝트의 하나인 Marinepia를 기존어항의 왼쪽에 조성함
-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종묘생산 및 대규모의 김양식장을 항 부근에 설치함
- 어장, 어항, 어촌, 관광이 복합적으로 기능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된 일본의 전형적인 어항임
- 시설로는 수산체험학습관, 임해 휴양광장(휴식터, 이벤트광장, 스테이지, 파고라 텐트 등), 환경녹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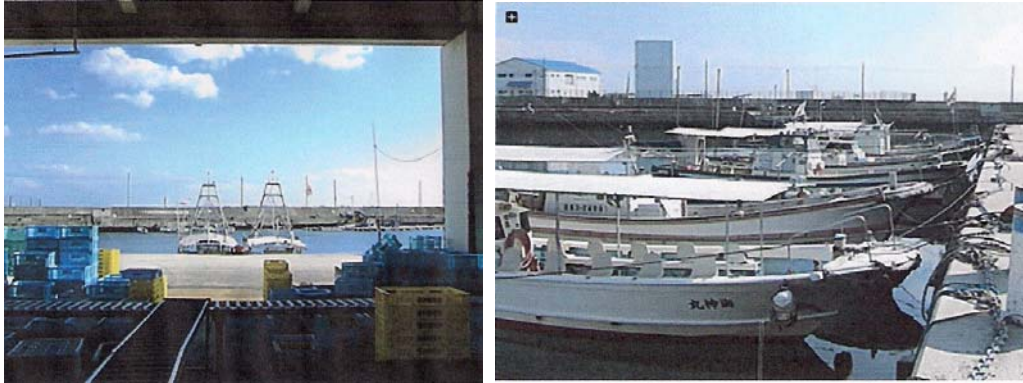


그림 40. 타루미 어항의 주변 시설

#### 라. 쉬베니겐 항

- 1971년 방파제 건설을 통하여 항내 정온도를 높여 선박의 안정접안에 기여하였으나 인근 해안의 침식 발생 및 항내 매몰 현상 발생으로 다기능항으로 개발됨
- 네덜란드에 있는 쉬베니겐 항은 어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리나, 해수욕장, 공원 등 친수공간 시설을 갖추어 어항 기능뿐만 아니라 해양관광, 레저 등 국민 휴식, 휴양 공간으로 정비되었음.
- 어항구역에는 수산물 경매장, 냉동창고, 가공공장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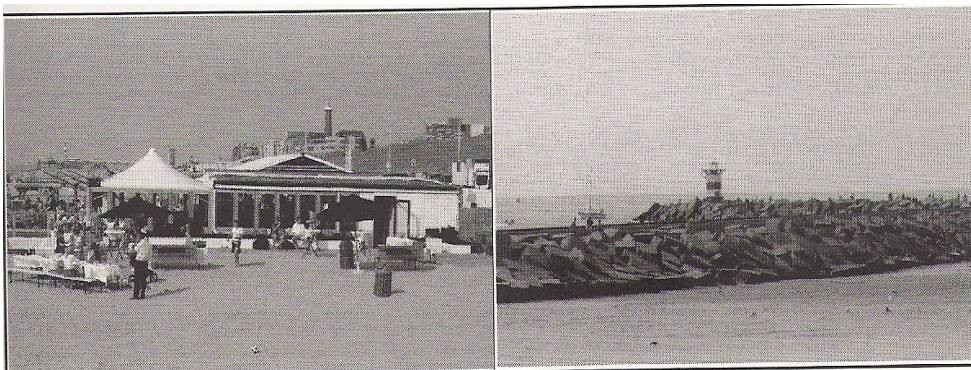


그림 41. 쉬베니겐 항의 주변시설(해양수산부, 2005)

### 3.2.5 국내외 기존어항 조사 결과

- 최근에 다기능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내 어항은 관광과 연계된 어촌의 소득 증대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음. 대부분의 어항이 마리나, 먹거리 시설, 해양테마 공원, 낚시터 개발이 대부분임.
- 각 어항에서 특별한 시설로는 홍원항의 경우 어촌체험형 가두리 양식장, 먹거리촌, 지세포항은 상업시설로 수산물 판매장, 먹거리 센터, Seafood 센터, 어민복지시설, 격포항의 채석장 광장, 함상공원, 가족호텔, 국동항의 어선·어구 보전시설, 활어임시 보관시설, 수산자원육성 시설 등이 새롭게 어촌의 소득원으로 설치되는 시설임.
- 해외 선진어항 개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 및 유럽 등은 벌써부터 항만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도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었음.
- 친수 시설 개발의 유행을 검토해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나라별로 그 결발 유형이 각기 다름. 각 나라별 친수시설로 유명한 곳을 보면 우선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다음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와 특색 등을 잘 부각시키고, 대중화 시켰음을 알 수 있었으며,
- 또한 친수시설은 항만 및 어항 등 그 기능에 따라 존치, 변화, 소멸, 신개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신개발보다는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친수시설을 많이 개발한 것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자연경과 등을 이용한 친수시설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음.

### 3.3 여건 종합분석

#### 3.3.1 SWOT 분석

- 보령시는 서해안시대를 여는 환황해 동북아권 교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경비행장, 유통단지, 컨테이너기지 조성 등 복합적인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과 서해안문화관광벨트의 대중적 관광중심지로서 문화관광기반 확충하고 있음
- 산업과 연계한 보령머드축제와 세계화,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개설, 서해안 도서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보령 신항을 미항으로 건설하여 중국 일본 북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보령으로서 기반이 구축됨
- [해양~도서~산악~호반] 연계형 관광코스 개발, 폐광지구진흥계획과 연계한다양한 체험형 휴양학습공간 조성 을 조성하고 있음
- 마리너시설, 해양수족관, 해양목장화사업 등 다양한 해양산업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 한편 대천항의 집입도로 정비, 항내에서의 안전, 어선접안시설 확충, 항내 준설, 항만배후지내 어구수선장 등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과 항내의 안전성 확보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안면도 연육교 공사에 따른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사업의 진행과 서해안의 해양형 휴양·레저단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서해안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상위 및 지역개발에 부합하고 각종 교통 및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항의 기본 및 기능 시설 정비, 노후화 시설의 현대화 등 더불어 종합적이고 다기능 항으로의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고 하겠습
- 대천항 다기능 항 개발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천해수욕장이 인접</li> <li>○ 풍부한 해양자원 보유 및 자원 조성에 따른 어획량 증가</li> <li>○ 대천항을 시발점으로 하는 경관이 아름다운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연계교통체계 및 진입도로 여건 취약</li> <li>○ 연안항(국토해양부 관할)으로서의 어항, 어업인 관련 시설개발의 어려움</li> <li>○ 항내의 원활한 접안 및 항내 안전항로 확보의 미비</li> </ul>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과 주 5일제에 따른 많은 관광객의 유입</li> <li>○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li> <li>○ 해양관광권과 중부내륙 문화관광권 연계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지역에 경합 시설</li> <li>○ 관광 수요는 필요한 다양한 체험 공간을 요구하나 항구로서 갖는 한계성</li> <li>○ 평택항, 군산항 등 인근 대단위 항구에 대한 의존도 증대로 자족성 약화</li> </ul>

### 3.3.2 전략적 시사점

#### 가. 기회포착전략

- 체험형 친수공간 및 어항에서의 화제성 축제 발굴
- 마리나 등 해양 스포츠 시설의 선도적 유치
- 가족단위 관광객을 배려한 시설의 재 정비
- 대천해수욕장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성 강화

#### 나. 강점강화전략

- 축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 주차장, 이벤트 광장, 친수공간의 확충
- 주변 관광 자원과의 친환경 먹거리 관광 거점 기능 강화
- 주변 해역을 해양목장화하여 바다 이용수요를 높임
- 섬의 편의시설 정비, 활용시설의 확충 및 섬 주민의 지원 강화

#### 다. 약점보완전략

- 축제, 마리나 등 관광 목적 시설 배치
-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극대화를 통한 계절적 수요 편중 극복
-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축제 시 주차장, 과양 등) 미설치 부지의 확보
- 연안항인 대천항을 어항으로 전환하여 어업인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라. 위기극복전략

- 대천항의 차별화된 전략 구상(친환경시설, 안전성, 친환경먹거리 등)
- 항내의 정비 및 부두 시설물의 현대화
- 어항의 기능 활성화 및 도서를 연결하는 관광 상품의 적극적 개발
- 대천항으로의 접근성 개선

### 3.3.3 개발 전망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 근무 형태에 따른 서해안 연안 관광 벨트 구축과 연계하고,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조기 완공 시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천항의 정비 및 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됨
- 대천항이 속한 보령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동서 고속도로 완공 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장항선-군산선 철도의 연결로 인한 철도교통망도 구축될 것으로 봄
- 한편 보령시는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며, 대천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4차선으로 정비 되어있고,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천항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정비되어 있어 어느 항보다는 접근성이 양호 함
- 또한 연간 1,000만명을 상회하는 관광객이 오는 서해안의 가장 유명한 대천해수욕장이 근접해 있어 대천항을 친환경적 시설로 재설치하고, 항내의 안전성 유지 및 대천항에서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일회성 단기적 행사에서 탈피하여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면 대천해수욕장에 오는 많은 관광객을 대천항을 유치

할 수 있는 것으로 봄.

- 보령시 관광 코스에 대천항이 들어 있는데 모든 코스의 마지막을 대천항으로 조정한다면 대천 앞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가 원활해지고, 이 때문에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이나 현지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대천항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 계획하고 있는 대천항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항내의 여유 수역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이 용이하고, 주변 해역을 활용한 관광·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또한 양호함
- 따라서 상위 및 지역계획에 부합하고 대천항의 각종 교통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관광과 연계한다면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제4장 기본계획 수립

4.1 개발 구상

4.2 기본계획



## 제 4 장 기본계획 수립

### 4.1 개발 구상

#### 4.1.1 개발목적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으로부터 보령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 중 연안과 도서를 방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해수욕장, 어항, 어촌 등은 농촌과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고유한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어촌과 바다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특히 대천항은 수산물의 양륙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판매공간, 도서로 출발하는 교통 시발점 등 지역주민의 교류공간인 동시에 지역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공간 역할을 하고 있음
- 대천항은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된 대천해수욕장 관광특구지역과 인접하고 서해열도(원산도, 효자도, 장고도, 고대, 삼시도 등)의 출입항으로서 각종 어패류가 집산되는 어업의 전진기지임
- 어항의 유희공간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어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즉 어항을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수산물의 가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어촌 활성화의 주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선어, 활어, 건어, 패류 등이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의 직판으로 보령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수산물의 유통과 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

- 그러나 대천항은 1995년 1단계 사업이 완공된 후 14년이 지났으며, 그 때 만들어진 시설(어판장, 어시장, 냉동·냉장시설, 친수시설 등)은 모두 낡아서 시설의 활용면이 떨어지며, 대천항으로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해안도로정비 및 도로 주차장 등이 미흡한 상태임
- 대천항 자체가 연안항으로 어항뿐만 아니라 여객선 터미널, 화물의 수송, 각종 해양활동의 전진 기지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항내의 협소로 따른 안전도가 문제로 되고 있음.
- 그러므로 노후화된 시설을 친환경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넓혀면서 수산물의 유통과 관광 상품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대천항이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천항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4.1.2 개발 방향

- 상위 및 지역개발 계획에 부합하고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 증가 및 어업인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대천항을 활성화할 각종 시설의 보완 및 신규 설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기능을 보완하여 대천항의 종합적인 다기능 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시설의 다기능화
  - 어촌문화가 숨 쉬는 어항
  - 어항 어메니티 제고
  - 어항과 인근 관광자원의 연계

○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음

1.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위하여 대천해수욕장~대천항 구간의 해안도로를 정비하여 산책로, 자전거도로, 테마 공원 조성
2. 먹거리 관광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3. 수산물 유통 시설인 위판장을 정비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4. 조망성이 좋은 곳에 수변 공원, 친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편히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 조성
5. 소규모 해양목장을 설치하여 바다낚시 체험장, 스킨스쿠버을 즐기고, 요트장, 유람선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여 즐길거리 제공
6. 도로망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제 개선
7. 항 주변 오·우수관 정비 및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로 청정 바다 유지
8. 대천항에서 할 수 있는 수산물 축제(대구, 아귀, 꽃게, 넙치 등) 개발

## 4.2 기본계획

### 4.2.1 도입시설의 검토

#### 가. 해양수산물복합공간

- 구매욕구를 자극하지 못하고, 동선에 방해가 되는 수산물 판매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공간 및 전시공간의 복합공간 조성
- 직매장, 먹거리 타운, 보령의 어촌, 섬과 어업의 전시공간의 조성

#### 나. 어촌관광 시설

- 어항의 유희공간에 가족 체험형 낚시터 운영 및 레저활동 기반시설 조성
- 해상 가두리 낚시터, 마리나 시설 설치

#### 다. 리모델링 어항시설

- 어항의 기능시설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제고
- 위판장의 리모델링
- 냉동·냉장시설 및 HACCP을 갖춘 수산물 가공공장 설치
- 위생적인 활어보관장 설치

#### 라. 친수공간 시설

- 관광객 유입을 위한 대천 해수욕장과 대천항을 연결하는 친수공간 조성
- 수변데크, 테마공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개설
- 어촌 체험형 소규모 해양목장 조성

#### 마. 환경정화시설

- 항내 정화를 통한 청정바다 유지
- 오폐수 처리시설



그림 42. 대천항에 새로이 보강되어야 할 시설

#### 4.2.2 도입시설의 공간 배치계획

- 생산기반시설인 어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공간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어항의 관광자원화와 어메니티 제고를 위한 공간배치가 필요함

가.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어항의 관광자원화 공간

- 어항에 양륙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의 소비와 어항의 기본시설의 다기능을 통한 어항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항시설의 관광자원화 공간

- 해양수산복합공간, 리모델링 어항시설

#### 나. 어항과 연계된 효율적 이용 공간

- 어항은 교류공간으로서 중심지 역할을 하여 관광객의 집합과 분산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어항의 가치는 증가함. 따라서 어항의 주변에 해양관광의 공간을 조성하여 어항과 연계함으로써 어항의 다기능화의 투자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 해상 가두리 낚시터, 마리나, 어촌체험형 소규모 해양목장

#### 다. 어항의 친수공간

- 대천항은 인근의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함으로써 해수욕장과 대천항의 복합공간인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수변테크, 테마공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 4.2.3 보행 및 교통 동선계획

- 대천항 배후부지에 조성된 어항 기능시설과 여객터미널 등 시설 간 연계동선이 보행 및 차량통행에 편의성이 떨어짐

- 대천항의 매립공사로 새롭게 조성되는 배후공간과 기존 대천항 배후공간의 연계하는 친수성 보행 동선계획이 필요함
- 대천 해수욕장과 대천항을 연계시키는 보행 동선계획이 필요함
- 따라서 대천항 매립지, 기존 대천항 배후공간, 대천 해수욕장을 연계하는 친수성 보행 동선계획과 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통 동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입시설의 공간배치계획과 보행 및 교통 동선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관광항으로서 대천항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함

## 제5장 투자계획 및 타당성 검토

5.1 투자계획

5.2 사회·경제적 타당성 검토



## 제 5 장 투자계획 및 타당성 검토

### 5.1. 투자계획

- 대천항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할 구역이 분할되어 있고, 지역주민, 수협 등 이해관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본계획이 있음. 따라서 이해관계자와 정부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한 대천항의 장기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 1단계

- 지역주민, 수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대천항의 어항 활성화와 이를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 □ 2단계

- 대천항 어항의 활성화와 이를 연계한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 예산: 2억원

#### □ 3단계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 민자

## 5.2 사회·문화적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 대천항은 수산물의 양륙, 유통가공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도서의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 터미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서주민의 교류공간,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교류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대천항의 기능을 살리고 대천항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있음

### □ 사회·문화적 타당성

- 중앙정부의 통합정책 추진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어항의 배타적 공간의 개방을 통한 이용주체 다양화
- 어촌주민과 관광객의 교류 활성화
-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어촌문화의 발굴 및 보전
- 수협과 지역주민의 유대강화

### □ 경제적 타당성

- 대천항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어항 투자 효율성 제고
- 쾌적한 수산물 소비공간 조성을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해수욕장과 대천항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제6장 대천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6.1 대천항 역할 정립

6.2 대천항 활성화 방안

## 제 6 장 대천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6.1 대천항 역할 정립

- 대천항을 수산물 유통과 관광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에게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살맛나는 복지어촌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초기지가 되어야함
- 대천항은 연안항으로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항구로 어항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여객·화물의 수송, 해양레저의 출발지이기도 함. 그러나 그 중에서 어항의 기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천항을 국가어항으로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항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대천항이 연안항이므로 각종 선박의 왕래 등으로 인하여 항내가 협소하여 선박간의 사고 및 겹치기 계류로 인한 항만의 경관 훼손 그리고 어구적재 불량 및 항내에서의 선박수리 등으로 인하여 항세가 너무나 비좁고, 복잡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항세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됨
- 2002년 법인어촌계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어촌계의 해산 또는 조합승격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계량화된 수치만을 대입한 법 적용으로 기존 지구별(보령수협)이 관할하고 있는 업무 구역 중심부에 또 다른 지구별 수협(신흥수협)이 인가되는 시행 차오가 있었음. 이러한 잘못은 두 조합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켜 국비 등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 추진상의 출혈경쟁과 리스크를 가중 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두 조합 모두 경영악화를 초래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양 수협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6.2 대천항 활성화 방안

### 가. 전국 무역항(연안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항세의 확장

- 항구의 기능을 확대하는 어선접안 시설 확충, 항내의 준설, 선박입출항 향로 확대, 화물적치장 및 새로운 접안 건설, 어구수선장 및 선박수리장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항으로 거듭나는 항으로 탈 반쯤하여야 할 것임
-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마리나 시설, 북방과제 진입을 위한 교량 시설의 확보

### 나. 어촌 및 어항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시설의 확충

- 직매장, 먹거리 타운 등 해양수산복합공간 확보
- 해상가두리 낚시터, 보령 어촌, 섬과 어업의 전시공간 등 어촌관광 시설 확보
- 위판장의 리모델링, 냉동·냉장 시설 및 수산물 가공공장, 활어보관장 등 어항시설의 리모델링화
- 수변테크, 테마공원, 대천해수욕장과 연결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개설, 어촌 체험형 소규모 해양목장 등 친수공간 시설 확충
-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항내 정화 및 각종 사용해수의 위생처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다. 어촌지역 문화가 살아 있는 대천항의 차별화**

- 어촌 및 섬의 문화가 깃든 시설의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

**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연계 개발**

- 대천항의 역사 및 어촌의 유형 또는 무형자산 발굴조사 수행
  -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자원 발굴
- 대천항 관광자원화를 위한 인력육성
  - 관광 대천항 전문 경영자 육성
  - 무형자산 보유자 발굴·육성
  - 해양수산물복합공간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 보령 섬의 날 이벤트 개최
  - 수산물 경매의 관광상품화
  -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주말 경매
  - 수산물 계절별미 개발
- 시설 디자인의 특화
  - 수산물 위판장의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자원화
  - 어선의 깃발 향연
  - 패션주의 관광자원화
  - 지역 사투리 간판의 관광자원화

## 참 고 문 헌

1. 해양수산부. 홍원항 다기능어항 기본설계용역 보고서. 2005. 12.
2. 해양수산부.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기본설계용역 보고서. 2005.12.
3. 해양수산부. 격포항 다기능 어항 기본설계 용역 보고서. 2005. 12.
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국동항 다기능 어항 실시 설계 보고서. 2007.7
5.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0-2020). 1999. 12
6. 충청남도. 2008 해양수산현황. 2008.6
7. 보령시. 2008 보령시 통계연보. 2008.12